朝鮮日報 夕刊 十日(水)

廣東南部北海에서 日本商人도 또 被殺

舊十九路軍長蔡廷楷歡迎의 抗日示威團의 所爲

【廣東八日發同盟】當地官憲에의 入電에 依하면 廣東省南部北海에 在住하는 日本人藥種商中野順三氏는 殺害되엿다고하고 詳細는不明이다

【香港八日發同盟】香港着報 日本人殺害記事中 日本人平野某라고잇는것은 右中野順三의 잘못이나아닌가 생각된다

【香港八日發同盟】海南島海口在留者 廣田善作氏로부터 香港總領事館에의 入電에 依하면 廣州灣東의 北海에잇는 日本人平野某는 中國人에게 殺害되엿다고한다 原因其他詳細는 不明이고 當地總領事館에서도 目下調査中을 기다리고잇다

【廣東八日發同盟】北海의 日本人中野氏殺害事件에 關하여는 八日午後三時 兩廣外交處로부터 當地總領事館에 正式報告가잇서 殺害事實은 玆에確認되엿다 犯人은 舊十九路軍이 指導하는抗日民衆團體로 去三日 舊十九路軍長 蔡廷楷는 抗日軍을 煽動키 爲하야 北海에赴하야 舊十九路軍將兵招待의 民族英雄大歡迎會終了後 同軍을先導로 北海各界民衆의對日示威運動을展開하고 對日官廳布告를 撤回하면서 市內를 遊行하엿는데 暴徒는 [illegible] 中野藥房附近을 計畫하엿엇는지 同藥房前에이르자 一齊히 喊聲을 지르며 店舖를破壞하고 屋內로闖入하야 恐怖에떨고잇는 中野氏를 拉去하야 亂打虐殺하고 또 店內를 破壞하야 藥品其他를 掠奪하엿다 中野氏의 中國人夫人及 遺兒二名에關하여는아직 何等報告가업스나 安否는念慮되여잇다 그리고 右事實이이와가티 늣게判明된것은 舊十九路軍이 電報局을 獨占하야 外部通信을 遮斷하엿기때문으로 同中國側의 海難報告는 海南島中國官憲經由로 到着하엿다

牧野侍從元山에

江原道水害視察을 終了한 牧野侍從은 八日一旦歸京하야 朝鮮호텔에서 一泊하엿는데 九日午前八時二十分 京城驛發元山에赴하야 同日元山을거처 溫井里에서一泊 十日高城의 被害를 視察하고 十一日午前七時二十分歸京 朝鮮호텔에서 少憩한後 同十時五十分京城發鳥致院에 赴하야 南鮮方面被害를 視察할터이다

南總督謹話

去八月二十七、八日에 亘하야 猛烈한 颱風이南朝鮮을 襲襲하야 여기때문에 海陸에 激甚한 慘害를 惹起하야 朝鮮始政以來 未曾有의被害를 내엿는데 今日까지 判明된것은 死亡及行衛不明者三、〇四五名 負傷者 三、一七四名 家屋流失、倒潰及床上浸水九七、五八七戶 船舶流失、行衛不明、沈沒、破損九、四二七隻에 達하는 狀況인데 이慘狀이 天聽에 達하매 惶悚하옵게도 天皇 皇后兩陛下께압서는 藤者侍從을御差遣하시고 다시 거룩御內帑金御下賜의 御盼附를 拜하와 聖恩의洪大하압신것을 恐懼感激不堪하는바이다 自然的災害이나 如斯히 자조 慘禍를 牽被하온것은 恐懼不措하는바이다 玆에 상가 官民一致 最善을 다하야 一日이라도 速히 災害의復舊를 圖하야 宸襟을 奉安하기를 期하는바이다

調査員一行 軍艦嵯峨로北海急行

三氏派遣決定

【廣東九日發同盟】廣東在泊中의 軍艦嵯峨는 廣東總領事館戶根木書記生、松浦警察署長及 小林警部를 同乘케하고 事件發生地北海로 急行할터인데 目下 出港準備中이다

【東京電話同盟】北海의 日本商人中野氏殺害事件에 對하야 海軍當局은 成都事件의 解決을못한이때에 又復如斯한 暴虐事件이 發生한것은 國民政府의排日取締가 充分치못한데서 基因한것이라하야 極度로 憤慨하고 第三艦隊所屬軍艦嵯峨를 北海에 急行케하야 現地調査를 行케하기로되엿다 同艦은去七日香港을出發하야 廣東에向하고잇슴으로 廣東에到着하는대로 即時領事館當局과 妥協하야 北海에 急行하야 徹底的現地調査를 行할터이다

【廣東八日發同盟】當地總領事館에서는 戶根木書記生松浦警察署長及 博愛病院의小林醫學博士를 北海現地調査次로 派遣하기로決定하엿다

【廣東八日發同盟】北海日本人殺害事件에對하야 中國側으로부터 正式通告를 受한 吉竹廣東總領事代理는 即時外交特派員刁作謙氏를訪問하고 本事件에關한 嚴重抗議를 提出하는同時에 即時領事館員을 現地調査次로 北海에 特派하고 中國側은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라고 申請한바 刁氏는 目下南路에는 十九路軍이 跋扈하야 威令이不及함으로 如何할수업다 또 十九路軍은 對日戰爭을 叫號하고 日本側과 重大紛爭을惹起하야 內爭의 工具에使用하려함으로 館員의 現地調査는 勿論 其生命이 危險하니 北海行은 暫時 中止케하여주기를바란다 따라 吉竹總領事代理는 八日午後五時 省政府主席黃慕松氏를 訪問하고 善後策에對하야 嚴重警告하엿다

中國側責任追及

陸軍武官室에서 重大聲明發表乎

北海事件의眞相判明時까지 川越大使南京行中止

【上海八日發同盟】北海事件勃發에 對하야 陸軍武官室에서는極히 緊張하야 夜中임에도 不拘하고 情報蒐集에 努力하고잇는데 成都事件에 繼續하야이러난 成都事件에 繼續하야 國民衆의 暴虐事件이 日中國交에 重大反映을 齎來하는것이라하야 重大視하고 九日午前十時半 喜多武官은 重大意見을 發表키로되엿다

【上海八日發同盟】排日事件頻發에 鑑하야 對中交涉은 새로운局面으로 踏出할 必要가生하엿기때문에 川越大使의 南京行은 事件의 眞相이判明되기까지 延期할는지도 알수업다

◇大使館當局談

【上海八日發同盟】北海日本人被害에關하야 日本大使館當局은左와如히 말한다

成都事件勃發以後 僅一旬을지나지못하야 또다시 如斯한悲慘事가 發生한것은 言語道斷이라할수밧게업다 이러케되면 中國에高調하는 邦交敦睦令은 車輛한 口實에不過하고 中國이 何等排日取締를 하지안는것이 더욱 明瞭하게되엿다 日本側은 事態의眞相을 糾明하야 徹底的으로 中國의責任을 糾彈할것이다

須磨總領事、張群氏와會見코 本格的第一次外交交涉開始

成都事件의 重大性을强調

【南京八日發同盟】須磨南京總領事는 八日午後四時 張群部長을 外交部에訪問하고 高宗武司長立會下에 成都事件解決의 外交交涉을 開始하엿다 即須磨南京總領事는 事件에對한 中國側의責任을 追及하는同時에 問題의重大性을 거듭强調하고

本事件의 解決如何는 日中兩國國交成否의 岐路이다 國府는 終來國交調整을 絕叫하고 잇스나 이를 實證할 事實을 示할것이데 國府는 이點에着眼치안코 事件其自體의 解決에拘泥하야 一時를 糊塗하는 如한 態度를取함은 責任을回避하는것이라고 말치안흘수업다

고 率直히 述하엿다 이에對하야 張群氏는 事件의重大性을 認定하는同時에 內政上 立場을說明하야 苦衷을 諒察하라고 述하엿다 그리고 須磨總領事는 이大局的見地에서 問題의處理에 當하지안흐면 解決은 斷然지을수업다 內政上困難이잇다하나 斷乎 이를 克服하야 究極의大目的을向하야 邁進하라고 國府의決意를促하고 事件解決의 具體方法에對하야 張部長의注意를 喚起하고 會見을終了하엿다

白頭山探險記

압흔다리끌면서 行路難에極悲觀

⑲ 徐椿

말하면 無人境에 屬하는 저은 나무들이 [illegible] 두가지다.

가다 열매가 열니는 나무인데 몃속이 한참으로 열매가 익어 잇다. 들쭉은 열매가 콩알보다 若干 크거나 말거나 한것으로서 맛은 酸味가 잇스면서도 香氣로운듯 하다. 마ㅣ첫은 마치 콩알 두개를 맛니어 노흔것처럼 가운데가 잘룩한것이 長鼓形으로 생긴것인데, 크기도 亦是 콩알 두개를 맛 니은것만치밧게는 안 큰것이다. 맛은 亦是 들쭉 맛과 비슷하면서 酸味가 좀더 强하다.

들쭉은 白頭山附近에 이것을 「ツルチク」라고한다. 白頭山入口農事洞近方에도 이것이 잇고 멀나는 無頭峰까지 이것이 잇다고하면서 一種 奇觀이라하야 此를 賞玩한다. 나는 茂峰, 神武城間의 들쭉 넝쿨을 건너다보러 들쭉나무를 얽어 가지고 그 열매를 따 먹기 始作했다. 들쭉은 絕頂이 달라고하야 一行은 누구누구 할것 업시 서로 다투어 가면서 따 먹는것이엇다.

그런데 나는 누가 잘못 가르켜 준 탓으로 一三時間 동안을 두고 마ㅣ첫을 들쭉으로 알고 따 먹엇다. 마ㅣ첫은 말것(馬의 乳房)의 音便을 따라서 變化한 말로서 아마가 운데가 잘록한것이 말젖 갓다하야 그런 이름이 부른것으로 볼것이다. 何如間, 마ㅣ첫을 들쭉으로 알고 一三時間을 두고 따 먹어 온든 나는 그것이 들쭉이 아닌것을 알고서는

「내가 人間에 虛로운것을 먹지나 안핫나?」

하야 근심하는 同時에 좀 不快했다. 그後에 어느 農夫를 對하야 무러 본 結果로 마ㅣ첫은 들쭉의 四寸쯤 되는것으로서 그亦 먹어도 關係치 안타는 말을 듯고 비로소 安心했다.

凝結로 술을 만드러 販賣하라고하드시 들쭉으로 술을 만들면 들쭉술이라고 할것인데, 惠山鎭에 가까운 사람들은 [illegible] 에·들쭉을 메어서 먹는 風習이 대로부터 行하다하며, 最近에는 멀니 京城까지도 들쭉술이 輸出된다는 말을 드럿다。

何如間、白頭山가리 飮料水가 적은데는 또한 들쭉이니, 마ㅣ첫이니하야 解渴劑를 山의 入口로부터 出口까지 到處에 [illegible] 해 노앗스니 大自然의 布置가 [illegible] 엇다。

今日 行程의 到着地가 神武城이라고하니 그런줄 알고 걸어갈뿐이지、가보지 아니한 길이라、目的地까지의 里數 又는 行程標에 依하면 昨日行程인 農事洞、茂峰間은 三十三粁로서 八十里가 좀 넘고、今日行程인 茂峰、神武城間은 三十粁로서 七十五里밧게 안되는데 只今 것고 잇는 나로서는 七十五里가 아니라 百里도 훨신 넘지 안나? 하는 생각이 나리만치 멀어 보인다。

가면 갈사록 深林 또 深林이오、거기는 何等 峰巒도 업고 溪壑도 업다。連日의 徒步에 알흐다 못하야 다 지친 다리를 죽죽 끌면서

「인제부터 目的地까지가 幾里쯤 되는가?」

는 싸름도 업시 千篇一律의 單調로운 深林을 걸어갈때의 그 心情은 무어라고 다시 形言할수가 업섯다。

다리도 하도 알흐고、몸도 하도 疲困하니까 白頭山探險이고 무어고 다 집어 치우고 當場으로 그만둘 생각이 불틋이 이러나나、참아 그럴수도 업고、또 그냥아니라、밤서 深林地帶 無人之境을 向하야 一百五十里길을 드러온 이 地點에서는 아모리 혼자 그만두려야 그만둘수도 업는 일이다。인제는 거를수 업스면 一行을 따라서 끌니워라도 갈수밧게 업고、그러치 안흐면 獸屬에 실니워라도 갈수밧게 업는 일이다。

참다 못하야 案內者에게

「神武城까지 아직 얼마나 남엇는가?」

를 무러드니 그의 對答은

「인제 朝鮮里數로 한 三里바게 남지 안핫다」

는것이엇다。

三里를 지낫스나 아직도 神武城이 아니다。또 三里쯤을 지낫스나 아직도 神武城이 아니다。이때 나는 突然히 까닭업시 그案內者를 미워하고 怨望하면서 一邊으로는 自己自身의 體力이 白頭山探險을 敢行하기에는 너무나 貧弱하게 생기지 안핫는가?하는疑心을 품게되는 同時에 제몸을 可憐히 보며、아울러 失望하기에까지 이르럿든것이다。

날도 이러케 疲困한가?하는 一點은 이때 내가 가장 알고십흔 일이엇다。그러나 나는 그 말을 아모한테 對해서도 참아 무를수가 업섯다。容貌에 나타나는것이라도 보고저 하야 前後列의 同僚를 자로 돌녀 보앗스나 그들의 擧動에 나타나는것만 가지고는 그들도 亦是 相當히 疲困해 보인다는것까지는 알수가 잇스나、그疲困하고 못견저하는 程度가 나와 꼭 가튼가 안흔가? 하는一點은 到底히 알수가 업섯다。여기서 나는 極度로 悲觀했다。

「나는 白頭山探險을 온것이 아니라、내몸은 이러케 弱하다。」

하는것을 남에게 보이어 恥笑를 사려 온것이 아닌가? 고 생각할때에 그로 因한 苦痛은 直接、肉體의 苦痛보다 더 甚함을 느끼엇다。(寫眞은 深林地帶의 險路=續)

葡國에叛亂勃發

左派水兵政府軍艦과衝突被逮

首都리스본에는戒嚴令

【리스본八日發同盟】西班牙內亂勃發以來 葡萄牙에서는 右翼政權에對한 左翼의 反對運動이 表面化하게되엿는데 八日 라호河에 碇泊하고잇든 驅逐艦 아폰소·달부콕號의 乘組員이 一部反亂을 이르켜 政府軍砲艦과의間에 衝突을 惹起하엿다 政府軍은 附近砲艦의 援助下에 短時間內에 叛亂軍을 鎭壓하고 叛軍의 全部를 逮捕하엿다 이 戰鬪에서 南砲艦은 坐礁되엇다 目下 國內는 平穩하나 萬一에 備하야 政府軍은 萬全의 準備를 整頓하고잇다

【리스본八日發同盟】葡萄牙砲艦 아폰소·달부콕號 乘組水兵의 叛亂事件에 關하야 葡萄牙政府는 緊急閣議를 開催하고 首都리스본及附近에 戒嚴令을 宣布하고 軍隊는 全部兵營에 收容하야 外出을 禁止하고 戰略上 重要地點 各官衙에 警官隊를 派하야 嚴重警戒에 當하여잇다

佛國의罷業 形勢重大

武器禁輸에反對

【巴里八日發同盟】西班牙勞働戰線과 連帶關係를 標榜하고『大砲와 飛行機를 西班牙로』이라는 標語下에 七日 擧行한 巴里金屬工三十萬의 大罷業은 他의 諸工業勞働者에도 波及하야 巴里東岸쎄ㄹ르몽·페라의 라이야工場勞働者는 八日一齊히 罷業을 開始하엿다고 傳한다 現政府의 半官機關紙는今回의 罷業으로서 勞賃引上及勞働條件의 改善을 目的으로하는 것이라고 樂觀的見解를 갖고잇스나 其他의 諸紙는 罷業의重大性을 强調하야 共産黨機關紙유마니테紙와如한것은 八日紙上에 今次의罷業은 西班牙에 對한 武器禁輸絕對反對의 示威運動이라고 揭載하야 逆睹키難한 形勢를示하고잇다

◇西班牙 內亂에 佛國政府가 冷淡하다고 左翼에서는 스토라이으로 反對。

◇佛國政府도 西班牙의 파씨즘化를 걱정 안는것이 아니나 佛國이 손을 대면 獨伊兩파쇼國이 革命軍을 援助하야 歐洲大戰이 이러날가 念慮하는까닭。

◇그러나 西班牙를 그대로 傍觀하면 파씨즘化할것이어 十中八九、冷淡한 中立이 結局佛國政府에까지 미치지 안흘가 몰라。

◇시리아獨立許容案 來週佛國議會에 上程。

◇불국內閣만이 이런 進步案을 提出할수잇는 能力者。

◇그러나 이런일을 하고보니 獨伊가튼 파쇼國과 對立될것은 明若觀火。

◇佛國防費 四千二百萬佛法을 國務會議서 決定햇다고。이 무엇을 말할것인고。

鮮滿拓殖創立

總裁理事監事任命發表

鮮滿拓殖株式會社는 九日에 創立되엿는데 이와同時에 總裁理事及 監事를 如左히任命하엿다

總裁 二宮治重

理事 [illegible] 堤永市 木村通 岡田[illegible]

監事 高元勳 [illegible]

鮮滿拓殖會社 創立總會經過

總督府多年의 懸案으로 向後十五個年에 八十萬人의 大移民計劃을 가진 鮮滿拓殖株式會社創立總會는 九日午前十時부터 北米倉町殖銀集會所에서 開催되야 創立委員長大野政務總監을 爲始하야 相川外事課長、新會社의 役員인 總裁二宮治重(本[illegible]

一、創立事項의報告

一、定款承認의件

一、朝鮮總督의 命令書에 依한 事業報告의 件을 各各 決議하고 二宮總裁의 就任인사가잇슨後 各理事의 紹介가잇서 創立에關한 報告事項全部를 完了하엿다 [illegible] 左와如하다

一、事務所를 京城府北米倉町九[illegible]

一、八月十三日定款認可

一、株式總數三十七萬株 [illegible]

一、創立費用 [illegible]

產業經濟調查會 規定八日官報로發表

朝鮮產業의 基本方針을 調査審議할 朝鮮產業經濟調査會는 委員選定도 決定되엇스므로 大體來月十五日부터 三十日까지의사이에 第一回委員會를 開催할豫定으로 總督府에서는 附議事項의 整理 其他諸般準備를 進行中인데 八日官報로 同調查會規程은 如左히 發表되엿다

一、調査會는 朝鮮總督의 諮問에 應하야 朝鮮產業及經濟에 關한 重要事項을 調査審議함

一、會長은 政務總監으로써 此에充함 [illegible]

水害恒久對策에 治水委員會設置

未曾有의 水害를 입엇스나 其應急措置에 對하여는 總督府臨時災害對策委員會에서 具體案을 作成하야 罹災民救助에 着手하엿는데 例外엇시 襲來하는 水害에 對하야 此際根本的 水害防止의 大計劃을樹立할 必要를認定하고 總督府에서는 明年度부터朝鮮治水委員會를 設置하야 水害恒久對策樹立에 着手하기로되여 目下豫算査定中인바 早晩實現되게되엇다 그리고 右治水委員會는 官民合同으로 權威者를網羅하야 明年度初에 開催하고治水恒久策을 樹立하고 其結果에基하야 具體的事業은 昭和十三年度부터 漸次實行할터이다

若竹、早苗兩艦 現地에急行

【上海九日發同盟】當地에 在泊하고잇든 第三艦隊所屬 第十三驅逐隊 若竹、早苗兩艦은 北海事件發生으로 今朝八時半 拔錨 香港으로 向하야 急遽 南下하엿다 同地에서 燃料를 補給하고 若竹은 事件發生한 北海로 急行하야 廣東으로부터 先着한 總領과함께 日本調査隊의 保護에 當할터이다 그리고 早苗는 香港으로부터 直行하야 同地에서 警備에 當할터이다

鑛山警察規則 近日總督府令施行

總督府鑛山課에서는 今年度豫算에 新設한鑛山警察機關에 關하야 近近그機能發動을 爲하야不遠鑛山警察規則을 制定하야 府令으로公布하기 爲하야 目下立案을 急히하고잇는데 同令의骨子는 左와如하다

一、技術에關한管理

一、落盤、窒息、爆發、崩壞等에對한處置

一、一般災害의防止

一、機械工作物의 危害防止

一、衛生救護

水害地에軍用毛布配給

總督府社會課에서는 二十個團의 軍用毛布의 拂下를 交涉中이든바 軍의好意로 五千枚의 提供을受하엿슴으로 總督府와 軍部가 協力하야 罹災地에 發送하야 遭害局에서 配給하고잇다

人事·集會

八面錄

▲齋藤淸治氏(金融組合聯合會理務部長) 新任人事次九日來社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一劑十日 一円 京城堅志町 平和堂

好職業
不景氣의 失敗를 이기려면 ... 福樂本舖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現代式販賣法
米國商學博士 延專商科敎授 崔淳周先生 校閱序文
新進商業研究家 梁基哲先生 著
四六版三百五十頁 定價 一圓二十錢 送料 十八錢
京城堅志町 漢城圖書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謹告
一般婦女子의職業戰線으로 ...
京都市吉田鹿子絞商會 大邱出張所 多仁駐在員 金世昌

時計 破天荒的廉賣
三一洋行時計部 新義州初音町二番地 合名會社

テントとバカ
福岡 岡山縣 電話 九一二五 商會

美孃香油 美孃ポマード
養毛 美髮의 第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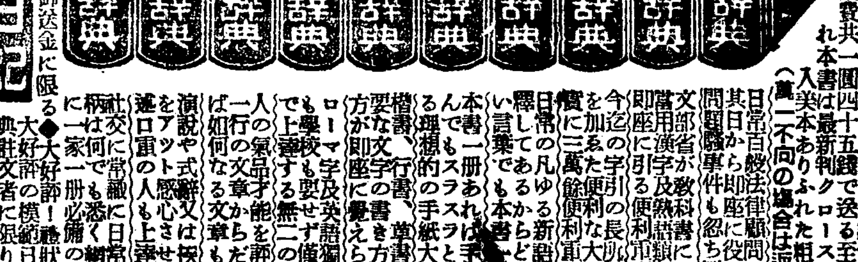
石榴機製作所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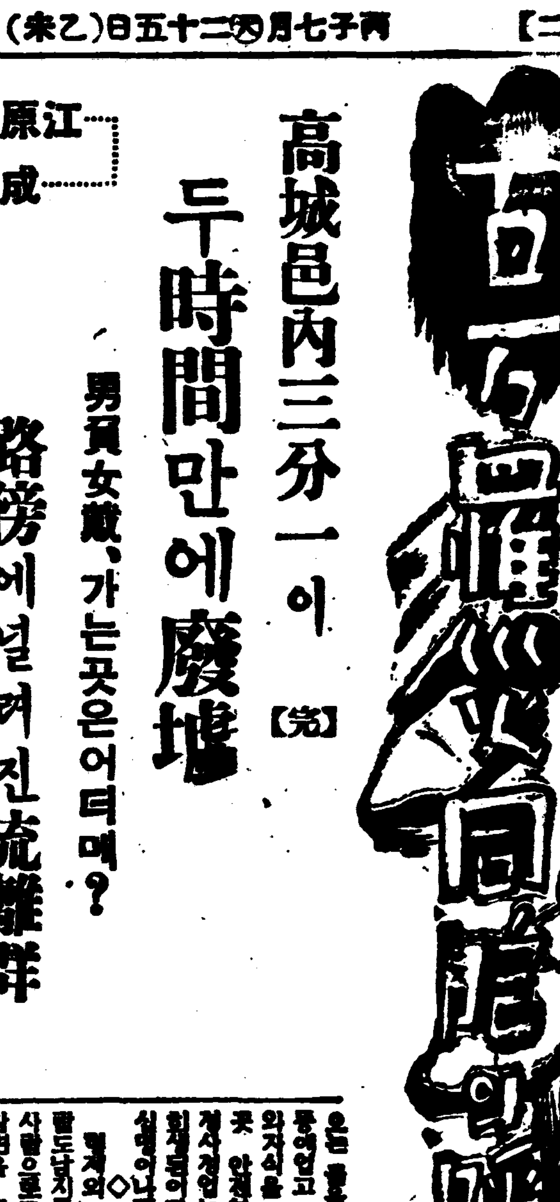
自宅で儲かる 副業本業
◎專屬製造者募集 가장安全確實히 된다
マルハマ紙工業所 大阪市港區市岡元町四丁目

京城秋季競馬會
開催 月日
九月十二日 九月二十二日
九月十三日 九月二十三日
九月十九日 九月二十六日
九月二十日 九月二十七日
於東大門外競馬場
朝鮮競馬俱樂部

辭典十冊 合本 一圓 各冊は分冊五十錢
殘本處分大投賣斷行
常用漢和大辭典 現代新語大辭典 手紙百科大辭典 英語獨習大辭典 文章百科大辭典 五分間演說辭典 社交常識辭典
特別景品 無代進呈 模範日記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 現代出版社

國產 カッピー
카피크림
카피크림의 科學的美肌作用! 藝術的香氣의馥郁! 카피크림 이야말로 美의殿堂에 關門을여는 唯一한열쇠!!
東京 牛込 豐香園製品





高城邑內三分一이 두時間만에廢墟

男負女戴, 가는곳은어데메? 路傍에널려진流離群

江原道災地에서 成仁基記 【完】

고성지방에는 팔월이십칠일께부터 호우가내리기 시작하야 련일 계속하여 오는바 이십팔일 새벽세시가량이되자 별안간 폭우로 변하야 두어시간만동안에 약사백미리나 비는물퍼붓듯이 쏘다저서 그젼부터 증수되여오든 고성읍서남편을 흐르는 남강(南江)물은 갑작이 둑으로넘치기시작하더니 일부분시오분께 큰소리와함께 강둑은드디여 터지고말엇다 [illegible] 사정업시 고성내로 드러미르며 세갈래로 갈려진물결은 고성읍내의 중심지대이고 상업지대인 동리(東里) 서리(西里)일대를 휩쓰른다음에도 더욱맹렬한 기세를부내이여 약구백호가량되는 고성읍내는 물가운데섬으로 변하고말엇다 [illegible] 물을피하야 시민은어린이를 등에업고 늙은이를 부축하며안해와자식을 손목잡으면서 높은곳 안전한곳으로 몰려가다가인정사정업는 물속에 생명을빼앗긴 이가 읍내에서만도 약사십여명이나된다

◇

[illegible]

◇

[illegible]

以心傳心의 救濟金品

同德女高寄宿生 點心굶고義捐金收合

貧民子弟의新設學院에서는 衣類二百餘點을寄託

삼남 재민들을 위하야 눈물로 을 먹음게하는 구제의연의 미담(美談) 두편──▲시내 동덕녀자고등보통학교(同德女子高普通學校) 긔숙사 생도 륙십여명은 또다시 이번에는 자긔네들만 단독으로 삼남의 재민들을 위하야 점심 하루를 굶고 모흔 돈 십원과 의복일백삼십점 운동화 열다섯켜레를 구입 본사로 긔탁하엿고 ▲시내 신설정(新設町)신설 학원(新設學院)은 빈민자제의학교로 지난번 경강일대의 수해에 그학교가수해를 입엇슴에도 불구하고이번 삼남수재의 리재민들의 정상을 생각하고 의복이백륙십사건을 구입 본사로긔탁하야왓다

潑剌한童心世界

벙어리와敎科書를災地에

재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학교에 갈려야 책업서 빈손을 들고 가게되는 불상한 동무들에게 이것이나마 보내달라고 가장 [illegible] 띄우고 벙어리와 교과서를 가저온 기특한 어린 아동들──시내 마장정(馬場町) 칠백삼십이번지의 삼호에사는 인천공립보통학교(仁川公立普通學校)아동 김자엽(金子燁)(?)군은 교과서 스물한권을, 동마장정 륙백팔십구번지에사는 숭인공립보통학교(崇仁公普校)아동 리제훈(李濟勳)(八)군은 동무들 벙어리한개를 [illegible] 통하야 본사에 긔탁하야왓다

漢江通에行旅屍

아츰 오전여덟시십분쯤되여 한강통(漢江通)십일번지 룡산헌병대 [illegible] 약 [illegible] 이 예순살가량되여보이는 늙은이가 죽어잇는것을 그부근사람이 발견하고곳 소관룡산서에알리여왓스므로 검시한결과 그의 [illegible] 이라는일홈이 써여잇는데 심장마비로 죽은듯하다고.

밤새워가며지은 고이적삼 칠백벌

中央禪學院의水害救濟品

시내안국정(安國町)불교중앙선학원(佛敎中央禪學院)에서는 팔일에 수재동포들에게 전달하여달라고 광목으로 지은 고이적삼 [illegible] 가지고왓다 수재의 참상이 신문에 련일 보도되는 것을보고 [illegible] 부인회원 삼십여명을 총동원하야 재봉틀이십여대를 느려노코 일은아침부터 밤열시까지 [illegible] 옷을지여 [illegible] 맨드러낸것으로 이 성의는 수해지에서 떨고잇는 형제자매들에게 감사히 전달될것이다

街頭에서 義捐金募集

齒專生의赤誠

시내 장곡천정(長谷川町)에잇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학생일동은 이번 미증유의 대수해로 말미아마 사경을 헤매이고 잇는 리재동포를 구제하자는 귀여운 뜻을 밝혀 오는 [illegible] 하학후의 오후네시반부터 밤열시까지 시내 종로 네거리와 본정입구 기타 번화한 거리에 서서 의연금을 모집하는 동시에 거리를 통하야 오고가는 거리의 사람들에게 구제의 뜻을 호소하기로 결정하고 학교의 량해를 어든후 구일아침 소관종로서에 보안계에 의연금모집허가를 청하여왓는데 그서에서는 곳 허가하엿슴으로 [illegible] 학생이 주야를 헤아리지 안코 번갈러가며 가두에서 활동할것으로 [illegible] 성의잇는 의연금을 바란다고한다

追擊바든竊盜 下水道로逃亡

구일 오전열시경에 시내 [illegible] 형사대가 시내모처에서 그인 [illegible] 적을 습격하자 도적이몰르는 때 다라남으로 이를추격하야 시내광화문통(光化門通)네거리까지 오자 도적은 드듸여그여페잇는 금융조합경기도지부앞 청계천하수도로 도망하여가자 오륙명의 형사대가 역시 이를따라 들어가게되엿는데 [illegible] 하수도에서 한참동안 일대추격이전개되는모양을 궁금히녁여 개천가에는 [illegible] 구경군이 [illegible] 잇섯는데 도적은교묘하게 자최를감추어버리고 말엇다한다

女子基靑東洋大會에 金活蘭氏參席

十五日午後印度錫蘭島에

부내리화녀자전문학교(梨花女專)부교장 김활란(金活蘭)씨는 오는 [illegible] 인도서란도(印度錫蘭島)에서 열리기로된 녀자기독교청년회동양대회(女子基督靑年東洋大會)와밋 녀자기독교청년회세계연합회실행부회(世界聯合會實行部會)에 조선대표로 초대를밧고 출석하고저 오는십오일오후 세시 경성역을떠나 출발키로되엿다 회가닷난후 [illegible] 귀국할 예정이라는데 이대회에서 토의할문제는 부인문제(婦人問題) 녀자의지위에대한문제, 녀자의공헌(貢獻)에대한문제, 종교부의활동에관한문제등이라한다 (사진은 김활란씨)

新昌에市內電話 十一日부터開通

충청남도신창(新昌)은 [illegible] 되여가는 형편이므로 체신국에서는 그곳우편소에서 시내전화의 가설공사를하든중 드되여 십일일부터 개통하기로 되엿다

死亡者三十九名 行方不明八十五名

德積島海上颱風害漸次判明

破船은合計二十一隻

사람은 조사에따라서 더느러서 총계삼십구명에 달하고 행방불명자는 팔십오명 부상자는 십구명 파선된배는 이십일척 [illegible] 구일오전열시오십오분에 덕적도어업조합(德積島漁業組合)으로부터온 전보를보면 덕적도바다에서 파선으로말미암아 죽은 [illegible]

受取人不明의電報

최근 약십일동안에 경성우편국에서 배달한 전보는 [illegible] 그가운데서 전보바든사람의 일홈과 정명(町名) 번지등이 불분명하게 쓰인것으로 말미암아 두번 세번이나 차저다녀서 겨우배달하게된 것이 [illegible] 또 아모리 차저보아도 배달할수업는 것이 팔십사매나 되엿다한다

五人組竊盜團 鍾路署에一網打盡

경성과 평양(平壤)을 걸치서횡행하던 오인조절도단이 [illegible] 종로서에 체포되엿는데 그들은 전과이범의 오창규(吳昌圭)를 괴수로하야 [illegible] 김성렬(金聖烈)이라는 자를 비롯하야 [illegible] 수천여원의 피해를 [illegible]

錦衣還鄕 朴泰俊氏

驛頭出迎盛大

【大邱】 대구출생 [illegible]

全朝鮮에 不連續線

降雨는關西地方中心

仁川觀測所發表

【仁川】 [illegible] 저기압은 [illegible] 측정키 어려워 수만재민을 울리고잇슴은이미 아는바 [illegible] 이것이 하로가 못되야 또다시구일아침부터 흐리기시작하얏다 이제인천관측소의 말을듯건대 이는 만주(滿洲)중부로부터 압록강(鴨綠江)까지의 [illegible] 저기압이잇고 또한양자강(揚子江)연안에 [illegible] 저기압이잇서 [illegible]

마도로스縊首自殺

【仁川】 『마도로스』의생활도 한때의공명으로 사라지여 세상을 [illegible]

寧越朝鮮電力의 人夫二名이溺死

江上에서電線架設中

【寧越支局發電】 작일팔일오전열시경에 녕월조선전력회사(寧越朝鮮電力會社)의 발전공사장인부 곽병섭(郭丙燮)은 [illegible] 녕월동강(東江)에서 전선을 가설하려고 도선하는중 수면에 [illegible] 배가부닷처배는 전복하는동시에 급류에떠나려갓는데 [illegible] 간신히 목숨을 구조하얏다

崇商送別戰

十日崇專體育館서

【平壤】 全日本中等學校籠球選手權大會에 連二次 制覇를目標로 東京에遠征할 우리籠球界의 麒麟兒崇仁商業學校籠球團을 激勵하기爲하여 崇實專門學校籠球部主催와本社平壤支局後援으로 十一의兩日間 午後八時부터 崇專體育館에서 崇商東京遠征籠球團送別戰을 開催키로 되엿다 이번 送別戰에 參加할 『팀』은 崇專 平鐵 崇中 光成高普等斯界의 一流 『팀』等 이므로 壯快한 『게임』이 展開될것이며 따라서 人氣도 非常히 노픈바잇다

入場料는 學生十錢, 普通二十錢으로 되엿고 費用을除外하고 遠征費로 提供하기로 되엿다

運動競技

中等柔道

申請은十一日限 留學生武道會主催

在東京留學生武道會主催의 第八回全朝鮮中等學校柔道大會는 九月十二日(土)午後一時부터 鍾路中央基督靑年會館에서 擧行할터인바 參加希望校는 來十一日午後三時까지 中央基督靑年會體育部로 申請하기를 바란다고하며 對陣抽籤은 十一日午後三時半에 同會館에서 行할터이라한다

臺灣鐵道러비來京

朝鮮鐵道局에서는 新設中이던러비球場의 落成記念으로 臺灣鐵道部러비-團을 招聘하야 十二日午後二時부터 朝鐵팀과 一戰을 行할터이다

野球爭覇戰雨天順延

京日主催의 第十三回全朝鮮野球爭覇戰第四日準決勝인 全仁川對府廳戰과 殖銀對釜山浦日鐵戰은 九日午後一時부터 京城球場에서 行할豫定이든바 當日은降雨로因하야 明十日로 順延케되엿스며 또 決勝戰도 十一日午後四時에 擧行키로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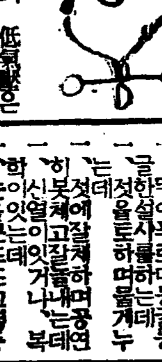
學生水球戰績

京城學生水上聯盟水球戰第二日은 七日午後五時부터 城大풀에서 行한바 當日의戰績은 다음과갓다

普專 5……4 大豫

齒專 6……5 高工

天氣豫報



槪況 七五四粍의 低氣壓은 南中國沿岸 滿洲朝鮮國境中部及北滿에잇서 그사이에不連續線을同伴하야 徐徐히東北東에 進行中이다 高氣壓은오호츠크海에서 七六四粍, 北中國에서七五八粍를 보이고잇다 滿洲는흐리고北朝鮮은 비가나리며 其他는흐려잇스며 東岸中部及南朝鮮南部內陸에는 안개가끼여잇고 琉球及西日本은晴 其他는흐려잇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흐리며 明日은개여다흐려지다한다 京城

全鮮도同一하다

昨日最高 二九度三

最低 二二度四

今朝最低 二三度

今日正午 二四度五

牛車夫轢死

원수의警笛

楊州의自動車慘事

[illegible] 윤대걸(尹大傑)은 우차(牛車)를끌고가다가 [illegible] 경기도제오천 [illegible] 자동차에 바치여 즉사하엿다 [illegible]

府內傳染病 猖獗

부내에 전염병이 작구 발생한다 이달에들어서 칠일까지 발생한 전염병환자는 이십이명 [illegible] 그중 지난 [illegible] 하루동안에 여섯명이나 발생하엿고 [illegible] 장질부사환자가 여섯명이나발생하엿다

就職과受驗에쓰일寫眞은…… 鍾路二丁目 中央寫眞館

朝鮮特產 / 國產愛用 / 自足自給 / 價格低廉

地方商店及個人注文特別歡迎

맛秋 침冬 홈스판 핸드빽 豫約開始中

都賣 全朝鮮各百貨店殿

同 各洋品店殿

小賣 半島淑女諸位殿

同 미스各位殿

豫 十月末까지 賣

今年流行型으로 最新式「홈스판」을材料로또-뜻한핸드빽이 새로나왓습니다 皮製와달너서 純駱駝及羊毛가原料임으로 秋冬用으로 最適切하오며 價格은極히低廉하오니 多數利用하심을伏願

我半島에 唯一한 핸드빽製造所인 弊社는卓越한技術과設備로 能히 百%써비스를 드릴것임니다。 一一히 맛침注文에 應한온 眞證據임니다

◎또好評밧는말총핸드빽도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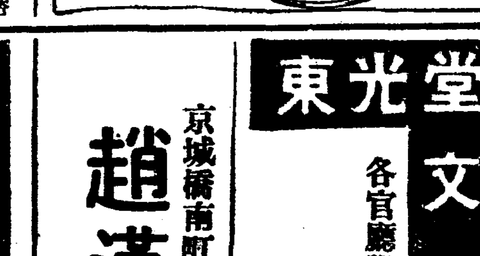
合資會社 빽製造元 京城嘉會町 東西洋行 電話光化門六五九番

工場所在地 京城・仁川・新村・島原

納 注文後 都賣部五日 小賣部即日 品

小賣定價 奉仕品 ¥2.90 A・¥3.50 B・¥4.80 C・¥5.50

桃屋의果實罐詰 후루-쓰 第一等品質



白桃、黃桃、枇杷、西洋梨 후루-쓰사이다 蜜柑 櫻桃 鳳梨 桃

各種食料品店에잇소 東京 桃屋發賣

恩給 長期據置 他에比較할수업시 低利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商會

간기、우유체、경풍、설사、두루든 동에 「보아젤」

本舖 京城藥局 振替京城八三三六 電話光3二七四

東光堂書店 文房具卸部

二學期學用品仕入은 至今부터 特히初開業諸位의便宜를圖하옵고迅速히應함 目錄要二錢切手封入

各官廳學校銀行會社事務用品具備

京城府寬勳町 電光三七〇番 振替京城一六一貳一番

趙漢英小兒科 京城橋南町電車停留場前 電光一九八七番

來る九日特別大公開 主催 京城小楠公會 後援 京城日報社 朝鮮新聞社

朝鮮社會事業協會御推薦 合同映畫社製作 JO映畫配給部提供 小楠公とその母 監督 中川紫朗 オール・サウンド

JO映畫超特作現代劇 原案 西條八十 監督 永富映次郎 オール・トーキー 勝太郎子守唄 小唄王勝太郎主演

嵐寬壽郎・草間實外JO大衆 米國エイス映畫特作日本版 監督 ゼイ・シーグツク博士 妖鬼インヤー 鬼氣と恐怖の大連續、驚嘆映畫の最高峰!!

永樂町 中央館

第一回商品見本市

◎移轉擴張記念奉仕◎

今般弊店이業務를擴張키爲하야 左記住所로 移轉하옵고此를紀念으로 新店舖樓上에서 第一回商品見本市를開催하고奉仕的으로 廉價提供코저하오니 一次枉臨하시와高評을賜하시기를千萬伏望하나이다

會期 昭和十一年九月十三日부터 同 十八日까지 六日間

會場 京城府西大門町一ノ六一 弊店樓上

▲優待方法▼

汽車賃呈上 (買上高金貳百圓以上片道 金六百圓以上往復)

近道優待 (買上高金壹百五十圓以上金三圓五十錢也 金四百圓以上金五圓也)

市內優待 (買上高金二百五十圓以上되시는분에게 車馬賃로金壹圓五十錢也呈上)

特別美麗金…… (規定額以上買上金二百圓을超過할時마다金三圓也呈上)

晝飯呈上 (午後一時前에오시는분에게)

商品種目 毛織メリヤス雜品、綿絲製品、ショール首卷、靴下、手套、子供服、既成服、ワイシヤツ、カラ、ネクタイ其他各種雜貨數千餘種

◎參會하실希望이계신분은葉書로通知하시요招待券과案內書를呈하겟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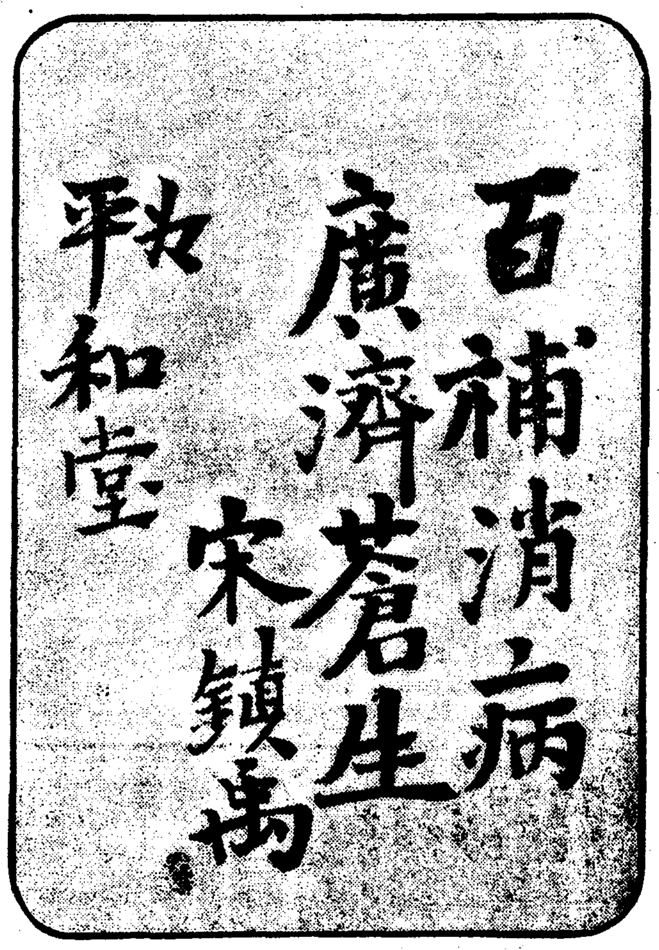
主催 大盛商會

貴族兩班 各界名士의 最大賞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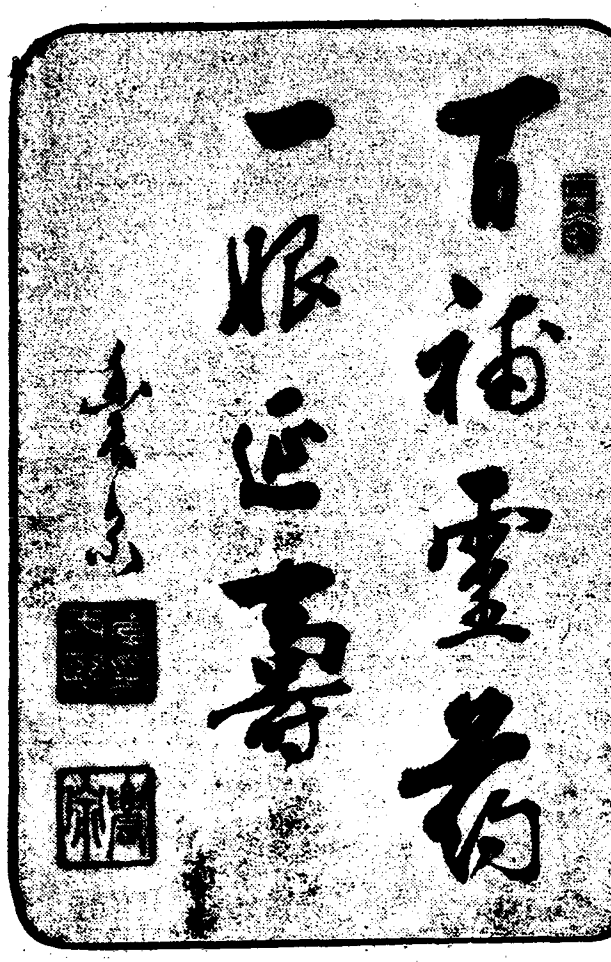
中央日報社長 呂運亨先生의推奬文

前外務協判 體育會長 尹致昊博士께서百補丸을稱讚하신推奬文

東亞日報社長 宋鎭禹先生의推奬文



李王職 李丙熙先生께서百補丸을稱讚하신推奬文



先着一萬人限하야 百補丸壹箱式 無料進呈

몸만 튼튼하면 무엇이나 못할것이업다 弱한사람은 爲先 世界的强壯劑百補丸을 쓰시요

世界第一紀念

●孫基禎은 世界第一! 獨逸伯林서開催한 萬國聯合運動會에서 一等

●이榮光、이名譽를紀念하고 祝賀하기爲하야 獨逸에는 孫君의銅像이서고 朝鮮에는 紀念體育館이 發起되고

●日本政府는 一千萬圓의 保健費를 豫算하는等 健康問題로 天地가 振動하는이때에

●最高의健康劑百補丸本舖 平和堂株式會社로서는 同胞의健康을爲하야 또는

●이世界的 歷史的名譽를 慶祝하며 紀念하기爲하야 損益을 不顧하고 大大奉仕的으로 先着一萬人에게限하야 百補丸十圓分一劑사시는분께 百補丸（拾圓包半劑入）一箱式을 無料添呈하기로 하엿사오니 勿失好機하시고 남보다 먼저곳 注文하시요 一萬人이차면 無料進呈은中止합니다

●注文書에는必히 祝賀特賣注文書 라고明記하시요

萬金不換의此事實

●朝鮮의貴族、兩班、大臣、各界朝野名士諸氏의 最大 賞讚 愛用을밧는補藥은 事實 事實 百補丸뿐입니다

●今回 獨逸伯林에서 열닌 萬國大運動會選手에게 까지 愛用된 補藥은 事實 百補丸뿐이며 百補丸은補血、强壯劑로 果然 世界第一입니다

●世上에는 別別 虛無誇大한 廣告도 다만흐나 事實 百補丸과가치 效力조흔 藥은다시업습니다

●百補丸의 偉大한效力은 只今 區區한說明을 할 必要가업사오니 廣告보다 事實을밋고쓰시요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百補丸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借力一平生無病健康長壽劑

●이런분은쓰시요●

陽氣不足、氣血不足은長壽못할前兆

●氣血이俱虛하야 形容이蒼白하고
●性慾이줄고 活氣가업고 下초가恒常濕冷하고
●肺가不足하고 허리가압흐고 머리가묵업고 精神이흐리고 神經이衰弱한데特效함
●消化不良 체중 속병가튼것은어느때업서 젓는지 알지도못하게 업서집니다
●筋骨이튼튼하여지고 氣血이 旺盛하여지고 힘이생기고 順借力이됩니다
●ホルモン不足으로因한 腦、性神經衰弱人은 더욱速効합니다
●全身五臟六腑를 다잘補하오니 참말 完全한 陰陽雙補되는快感은 百補丸服用人이라야만 알것입니다
◉過飮過色人에게는 特別速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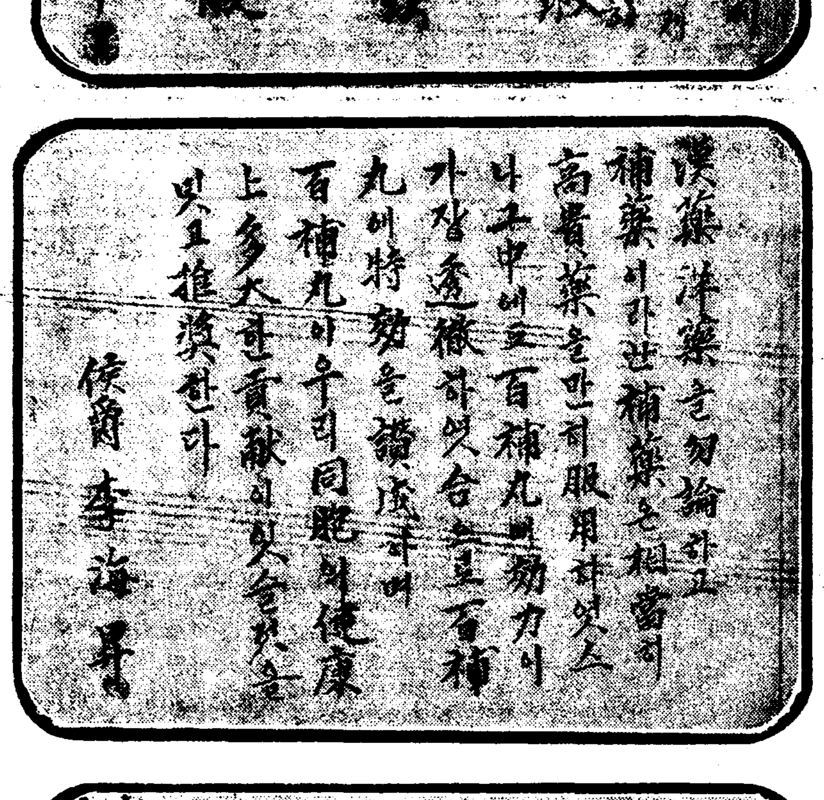
藥價 一劑特價拾圓 一壹用二十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하시면 周旋人께一劑無料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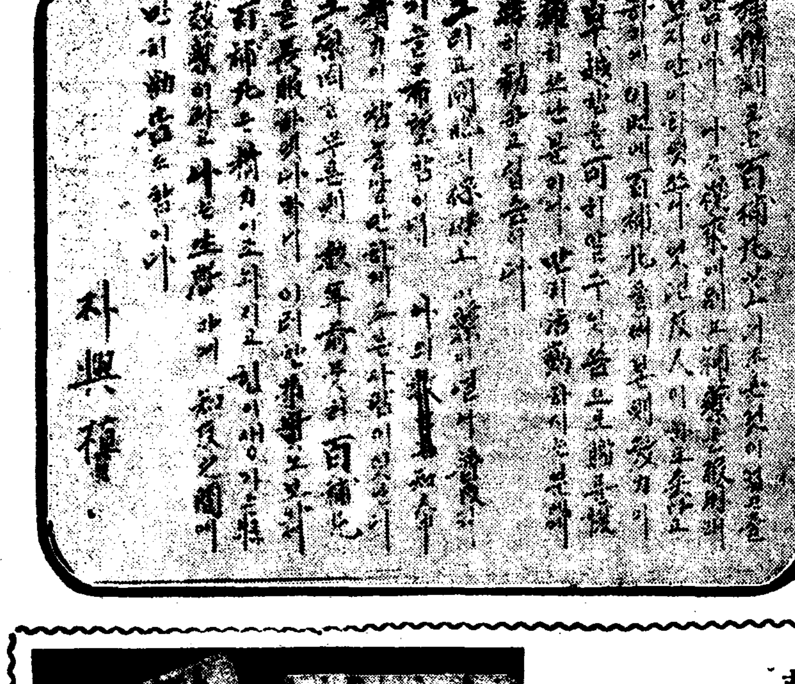
●初秋! 只今이健康回復의 最好機
●靑春을延長하고저하는사람은쓰시요

前宮內大臣 男爵 李允用閣下의推奬文

侯爵 李海昇閣下의推奬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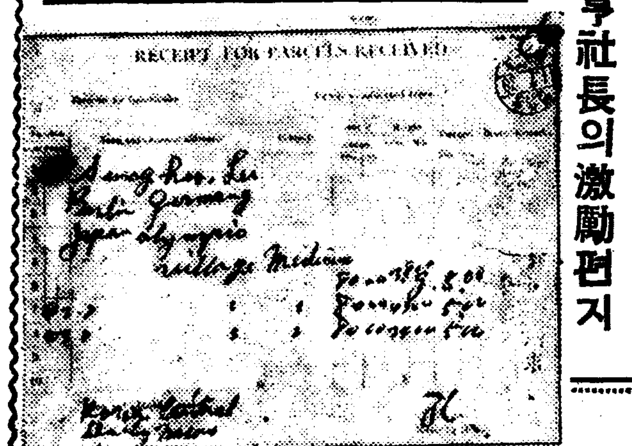
和信社長 朴興植先生의推奬文



不老長壽·强精回春·更少年補藥

百補丸을쓰면 무엇이나 所願成就

朝鮮中央日報社運動部를通하야 獨逸伯林選手에게發送된 百補丸十一箱과 呂運亨社長의激勵편지



委托販賣店募集 地方有力醫師醫生 有力藥店에限함

藥注文送金은 左記三處中便宜한口座에하시요
一、振替京城五番 平和堂
二、朝鮮銀行本店內 平和堂
三、商業銀行本店內 平和堂

販賣所
一、本社直賣部
二、總督府商工奬勵館
三、全鮮十三道廳商工奬勵館
四、全朝鮮商品陳列所
和信連鎖店

平和堂藥品部株式會社

京城府堅志町五 振替五番 電話光六三二番

솔바람

兒童劇 "맴이잡이"(全一幕) (8)

南基薰

경숙 (반가운드시)「아이고 여기는 매미가 퍽만코나 아이 저것봐 저기도간다」

공기 (나무숙에숨엇다가)「애도 누가와다」

경숙 (놀나며)「아 어듸서 사람소리가 들린다 벌서 누가 와잇나보다」

공기「얘 얘 인사 해라 인사 해」

경숙「인사를해 아니 누구한테」 (이상하다는드시 이곳 저곳을 둘러본다)

공기(점잔케)「나한테하지 누구한테가뭐냐」

경숙「나라는사람이 누구에요」

공기「공기다 공기야」

경숙 (알엇다는듯이)「아ー공기 따는 그럴듯도해」

공기「인사하기가실흐면 매미가 오는대로 내가쫏차서 한마리도 못잡게할테이니 그런줄알어라」

경숙「가만잇세요가만잇세요 누가인사 안한대요 그래지만 무엇때문에인사를안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공기 (가르처주는듯이)「너도 모르는고나 이것봐라 네가지금 순대는 내가 너 오기전까지 잇든대다 그런데 네가와서 내가 밀려나지 안햇니 엇재너도 학교엘 단이면 리과(理科)를 배울텐데 왜 그런것을 모르니 응」

경숙「올치올치 알엇다 알엇서 공기가 잇는대를 내가 해섯스닛가 그대신 인사를 하란 말이지요」

공기「그럿치 그래」

경숙「그러면 인사해야지요 (아프로가서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섯습니까 어려우시지만 두시간만 여기잇겟스니 그러케 해주십시요」

공기 (조하서)「그래그래말대로 천천이노라라 그런데 너는참 착한 아이다 내 조흔매미를 잡게해줄테니 저나무미테 가 잇거라 내잡까단여올께」

(공기는나무숙으로들어가고 경숙은 나무미테가 가만이서잇다)

매ー「맴ー맴 아이고아이고 저놈의바람이 나를이리 모라오네」(바람이분다)

경숙 (가만히혼자말로)「아ー저기 매미가 따는다」

매ー「아이고 다리아퍼 맴ー맴 요기좀 안저야겟다」(경숙이가 섯는나무에와안는다)

경숙「야 참 이매미는 입분매미다 (가만가만히 매미채를들고가서 퍽잡는다) 아ー잡엇다 잡엇다 인제처엇다」(기뻐춤춘다)

공기 (다시나오며)「엇더냐 조흔매미가 아니냐 그러게 조흔 매미는 이산에도 한마리밧게 업다 이산에서도 제일잘놀고 조흔매미란다」

경숙「아이 참고마워요 (매미를 보며)이러케조흔매미를 공기덕에잡엇스니 참고마워요 인젠 해가 저무러가니 그만가겟서요」(나오려한다)

공기「응그래 그러면 또오너라나는너가티 착하고 정직한사람을 퍽조아한다 내너올때까지 다른산으로가서 그것보다도더 조흔매미를 모라다두마」

경숙「아이참너무도 고마워요그럼 도울게요 그런데 오늘나 때문에 퍽애쓰셧서요」

공기「별말을다한다 내또기다릴테니 꼭오너라」

경숙「네또올게요 안녕히게서요」 (뒤를 도라보며 천천히 나간다)

공기「잘가거라 꼭 잇지말고 도오너라」(인사하고 나간다)

(경숙 천천히 나오다가 노래 부르며 아조나간다)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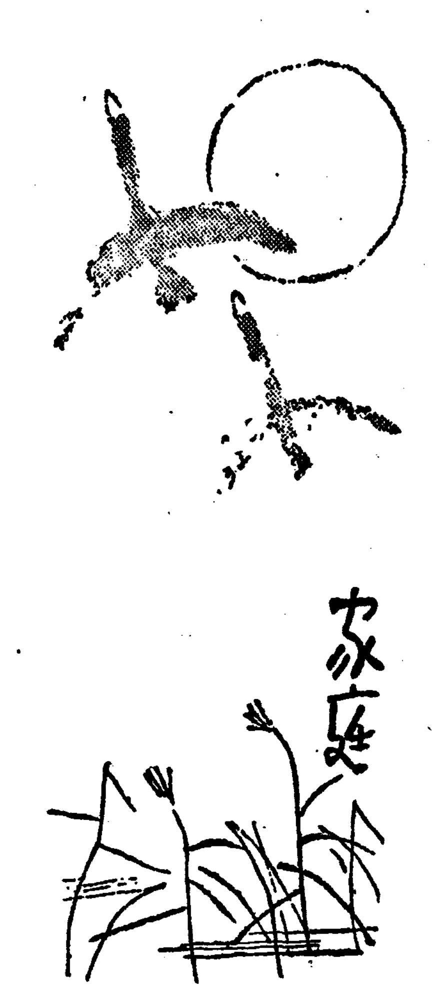
집에가다 고히기를 매미잡엇습
하로종일 차단여도 못잡겟드니

◇

공기로해 제일이란 매미잡엇다
장에너코 고히길을 매미잡엇다
매미차저 하로종일 지친몸이니
어서가서 편히안저 다리쉬잔다

ー노래하며 나갈때 막은내림ー

ー끗ー



무슨까닭일까 "식후제일미" 흡연을해서코로내면 되려맛이낫바저

「식후제일미」란말은 담배피우는사람들이 자랑삼아하는 말인데 식후에 담배한대피우는맛은 천하일미라는 뜻입니다 엇재서 식후의 담배가 맛이조흔가! 식후에는 담배를 피우구십흔 생리적인 원인이잇서서 그것을 만족하게되니까 식후일미는 맛이잇슬밧게업습니다 음식을 먹고나면 혓바닥주위에 지분(脂粉)이 끼고합니다 그러면 혓바닥의 신경(神經)은 자연 근질근질한것도갓고 깔깔한것도가려워집니다 그럼으로 엇더케자극을해서 신경이드러나게하고십흔 기분이 작고이러날것입니다 이것은 입안이텁텁할때 물로 양치질을하고십흔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니 이욕구를 만족하게하는것이 담배요 담배의 자극으로서 입가심이되는것입니다 그러면 혀를둘러기도 조코 또 혀의 분필이 시작되어 지분이녹아 혓바닥이 비로소 깔끔하게되는것입니다

서양사람들이 보통 씨가렛(兩切煙草)보다 려송연과가튼 독한 담배를 조와하는것은 서양료리가 동양료리 특히 우리네료리보다 기름저서 지분도 두텁게 끼이는 까닭에 자연히 독하고 연과가 만히나는 여송연을 집기게 되는것입니다。이것에대한 증거라면 우습지만 빠러ー를 혓바닥에발으고 독한담배를 피우면담배맛은 조치만 너무 독해서 못견듸겟다…… 이러한 일은 업습니다。그와 정반대로 전해성(電解性)이 강한 소곰물이나 초산(硝酸銀)으로 혀를 잘씻슨 다음에 담배를 피우면 이번에는 너무자극이 강해서 견되기 어려울뿐더러 특히초산은 씻슨경우에는 담배생각이 나기커녕 되려실흔생각이 나기까지합니다 담배꼿는약, 즉 담배피우기 실은생각이 나게하는 약도기실은 여기에서생긴것입니다

◇

그다음 아침에 이러나서담배한대 피우고시픈 생각이 나는것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 맛이 잇는것도 악가와가튼 리치에서 나는것이니 밤사이에 혓바닥에 지분과 점액물이 더지더지햇슬것이니까요 그러나식전공복에 피우는담배는 위생상조치못한것인즉 찬성할수 업는것입니다。

◇

담배피우는 사람치노코 흡연한달해서 연기를빠라 목구멍으로 드려마시엇다가다시코구녕으로 입으로 내노치안는사람 업습니다 이것은담배를 피우는것이 아니고 먹는것으로볼밧게 업는데 이러케담배를먹어야 정말담배먹는것으로 아는것은 대단한잘못입니다 흡연하는것이 건강에 대해로운것은 별문제로하고 정말 담배맛을모르고 먹는것이 되는것입니다。담배를 피울때는연기를 한번주ー그드리키어입안에 너어두엇다가 도로입으로 배려야합니다 남보기에 어색한듯하기는하나 이러케피우는것이 연기로부터 담배맛을 보는 가장고등가는 기술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맛을 아는신경은 대부분혀끄테 모여잇습니다 그럼으로 담배연기도 혀끄테 돌렷다가 다시입바그르내노음일이지 급방빠랏다가급방 그것을 흡연해서코구녕으로 내놋는다면 알찬담배맛을다 볼수업게되는것이며 또 남보기에라도 코구녕으로 연기를 풀풀내어놋는것은 천해보입니다。옛날 엽초먹든 시절에는 흡연이라는것을모르고 지냇습니다 그것은독해서 그런것이아니라 정말로 담배맛을 알기에 그랫든 것입니다。

◇

그다음은 맛으로본 담배의 류행인데 담배맛을 분명히 알자면 고개를 약간 뒤로 재치고、여송연을 듬뿍물어 연기를빠라 입에머음엇다가 내놋습니다 그러면 맛과향취가 입안을 돌고돕니다、토이기(土耳其)계통의 담배로「웨스트민스터ー」「호박」(琥珀)가튼것은 향기와맛이 다가티 조흔담배요、미국바ー지니아」계통의담배는 향기보다 맛을 위중해맨든담배입니다 요새 우리네가 피는「마코ー」니「피존」이니 하는것은 향긔미(香喫味)가 진하지안코、피우기에편코、비교적 냄새가조코、파히독하지안은 소위 완화연초(緩和煙草)에 속한것입니다。

결국은녀성만세! 녀자가남자보다 더오래산다 대체무슨까닭일까?

녀자가 남자보담 오래산다는 것은 동서양을물론하고 통계상에뚜렷하게 나타나 잇는것입니다미국 국제조사국장「윌리암。오ー스틴」씨는 백인종의녀자의 평균수명은 륙십삼세며 남자의평균수명은 오십구세로서 녀자는남자보담 평균네살을 더산다는것을발표하얏습니다 그의말에의하면 이원인이녀자의생활향상과 의학의발달에 따른것이라고 하나 의학의 발달과 생활의 향상은 녀자에게만 그혜택이 입혀질것이아니므로 다른무슨원인이잇서야 할것입니다

녀자가 남자보담더오래 산다는 것은 하필인간만이가진 현상이 아닙니다 하등 동물에까지라도 암컷은 숫컷보담 오래산답니다 인간은 국세조사가튼 귀회로통계가 나타나서 잘알수잇거니와 하등동물은 다만 각국의동물원에서 내는통계로보아 알수잇습니다 극단의례로는 옹솜색이(螳螂)가튼버레에잇서는 숫컷은 다만 교미만하는 기구에지나지안습니다 교미가 끗나면 암컷이 숫컷을잡아먹는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만하등동물일사록 더현저하며 사람에게도 미개인일수록이러한경향이더합니다 그러면 녀자는 무엇때문에 남자보담더오래살게되는지 그원인은 자못흥미잇는것입니다 위선의학적으로 본다면 녀자의사망률은 청춘번민기와 초산기가 제일 만허서 사망의 위험은 이두가지뿐이라고볼수잇습니다 이것은 자연히 녀자에게 이두가지의 큰 위험을 주는 대신에 다른 위험을 더러주엇다고 볼수잇습니다 그리고 녀자는사실에잇서서남자보담장복한저항력이더굿센것입니다 그것은 녀자의혈액과 남자의혈액을비교할때 녀자는 남자보다 엄청나게만흔 저항력을가지고잇는것입니다 그리고 녀자의정신은 남자의정신에비하야 안존하며 참을성이잇고 남자처럼 조급하면 폭발하는것가튼 폭발성이적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보더라도 남자는 생명에관계되는 위험한장소와시간을 녀자보담더 만히가젓습니다 첫재로 전쟁에서는 거이 남자만이죽는다고볼수잇스며 근육로동에서도 위태한것은거이남자가 마타보고잇는 형편입니다

그외에 가정적으로 볼때라도 남자는녀자보담 신체를 더쓰며 조용한시간을못가젓다고 볼수잇습니다 더욱 조선과가튼데서는 남자는 일반적으로 육체와정신에 여유가업고 늘조듭이며 따분하야 휴식할기회를 가지지못하엿다는것이 녀자가 남자보담 오래산다는 원인이될수잇습니다

이런자전거가 미국서대류행

우리차지

"해바래기"

울타리에 가려서
아츰햇볏 보이지안네。
해바래기는
해를 보려고
키가 자란다。

(글쓴사람 오장환)

가정의화 치근롱양

問 삼십세청년으로 십여년전부터 입안잇몸(치아가박힌곳)이 부어서 못견듸게아픕니다 어떤때는 꼼마서 터저야 낫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농이나오는곳도 잇습니다 완치하는방법을 교시하야주시옵소서 언제나 일정한곳이아니고 이쪽저쪽으로돌려단니오니발생시에국부치료방법좃진롱법을상세교시하야주시옵소서

答 치근에 롱양이생긴듯하오나 고름이잇서서 언제즉이뿌리에 고름이생기는것이나 주외에 잇몸롱은 치아로하야 고름이생겨나갈때가업스면 그분이부어서 고롱을당하게됩니다 물론이러할때 자연적으로나 긔계적으로 붕은부분은 터트리면 롱종이감하야질것입니다 그러나이와가티고롱이생기는병은 정신적으로쇠약하야질뿐더러생명에도위험합니다 속히전문의사에치료를밧도록하시요。국부치료법으로는발치(拔齒)가제일일것이요 윤근진통법으로는 외부척협부(頰部)를 랭각(冷却)하야보시요

(世醫專齒科 金誥庸)

좀처럼못보는 선인장의꼿 집안에서잘못가꾼탓 비료와온도에달렷다

◇선인장(仙人掌)을 악으로쓰기도하며 보기도 아름답고 귀여운 화초입니다 지금까지는선인장은 물을 주어서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잇섯스나 요사히는 보통식물과가티 물을알맛게 주어야 한다는것을 알게되엿습니다

◇물을 줄때는 오전열시쯤되여서 해빗치쨍쨍할때주어야하며 결코 흐린날에는 물을주어서안됩니다

◇비료는 봄으로부터 여름까지에 조코나 가을부터 겨울동안 겨우잠(冬眠)을잘때는주지안토록하여야것도 흐린날에는 주어서는 못씁니다 비료에는 보통깨묵(油粕)가튼것이 조코꼿피게하라면피린산석회를 물에타서 주던지고기뼈다귀를석혀서 주는것이조습니다 선인장분에는 류산「암모니아」를주는것도 조습니다 류산비료는될수잇는대로 협하게 물에타서 주도록하며 흙은나뭇닙썩은것에모래를석거서 심으는것이발육상조흠니다

◇선인장꼿치피면 그집에 자손이귀하고 손세가일안이라는속담이잇스나 이것은 옛날부터선인장꼿을 피게하는법을 모르고 좀처롬 꼿치피지안흠으로 희귀하다는것을 상징한것입니다

◇꼿은청아하고 고상하기짝이 업스니 꼿을피게손질을 하는것이조습니다

◇종류는 여러가지나 제각기 취미에맛는대로 가리는것이조습니다 그리고꼿이지면 열매까지 여는때도이면 맛이희한하다합니다

第1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會期 自十月五日―至十四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畵科 (四君子를包含함)
西洋畵科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畵科
手工科

褒賞

入選作中에서左記二級의入賞作을選拔하야各々如左한正賞과副賞을授與함 (以外의入選者에게對하야는全部記念牌를進呈함)

(中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五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三十圓)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牌 副賞 二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正賞 賞狀 副賞 十圓)

一、特別褒賞【本社長賞】一人百圓 右記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 認하는作品에對해서는 本社長으로부터 特選賞에 參하야 特히 社長賞百圓을授與함

一、申請及搬入場所 一、本社庶務部 二、平壤、大邱、咸興、全州各本社支局

一、申請期日 自八月十五日至九月廿七日 一、搬入期日 自九月廿八日至九月三十日(但前記支局을通하야 搬入할時는二十九日까지)

一、出品規定 本社所定申請書를請求하야 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여 本社 又는 各地方事務所로提出하고 作品背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號及作者氏名、住所所屬學校學年別及 年齡等을明記하야 本社又는地方事務所로搬入하시오 (詳細規定은葉書로問議하시오)

主催 朝鮮日報社

무좀버짐에 アスター

皮膚病은 初秋가肝要

治療치못하면一時逼塞하여도 徹底的으로도亦是明春에再發한다

아스타ー는滲透性이强하고皮下深部의菌虫까지殺滅하고爽快하게가려운症과分泌를除去하고全혀無刺戟安全하야速한理想的良劑이다。

每年困難하신분은 꼭試用하십시요

主効 ▲버짐 ▲무좀 ▲쇠버짐 ▲습진 ▲白癬

定價 三十五錢 一圓五十錢 各藥店にあり

發賣 大阪 東京 丹平商會

健腦丸

疲勞한腦에 休息과榮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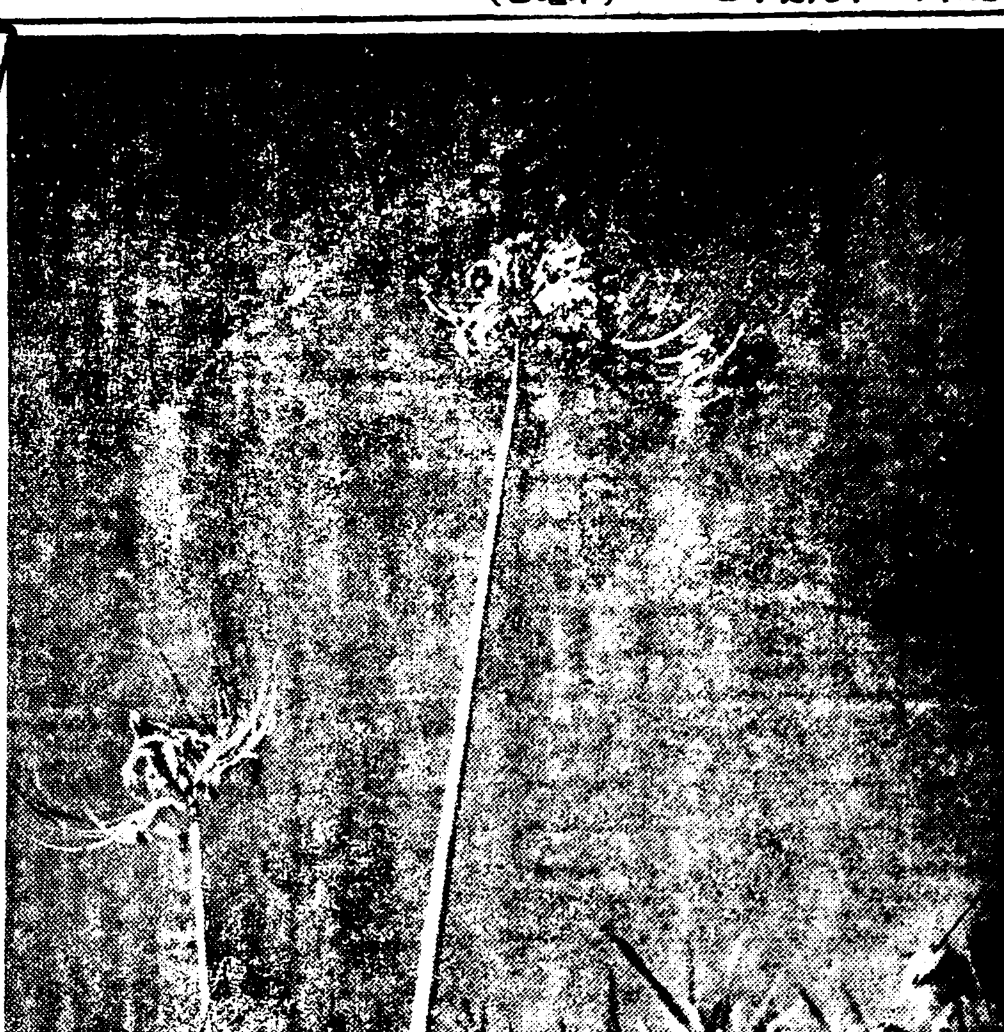
疲勞한腦의亢奮을鎭定하고、血行을整齊하며、爽快한安眠과便通을어들수잇고、速히疲勞毒素를排出하며頭腦를明快하고、健全하게記憶力思考力을增大하는「健腦丸」의 가장有効한服用劑입니다。

活躍、工夫의가을을마지하야 먼저本劑를試用하십시요

主効 頭痛、上氣 不眠、便秘 眩暈、腦充血 히스테리ー 神經衰弱

價 五十錢より十圓迄 各藥店にあり

發賣元 大阪 東京 丹平商會藥房



花壇의 晩景

漢詩

『蓮』 押心

鄭寅普 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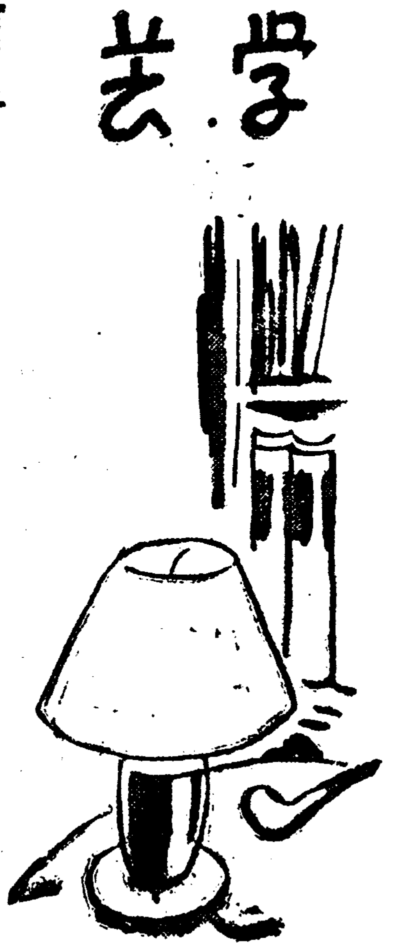
三等之二

崔松岡

雨蓋亭亭雲錦沉·
却疑仙女水中臨·
清香襲得鷺鴦夢·
紺葉聯成翡翠衾·
詠興詩人如欲語·
比於君子亦同心·
江南別有吳歌唱·
助欲碧筒興不禁·

評日 [illegible]

學藝



文章論

現役作家들의 伎倆

─그들의 個性과 領分에 關한 小考─

⑦ 安懷南

그러나 朝鮮語를 몰으다고 하면서 남의批評에는 朝鮮語에 關하야 無不通知인것가튼 金文輯氏의 行動은 確實히 喜劇이고 또 金裕貞氏에게 對하여서도 一面 其모찌아지(持味)를 잘

……理……解를 하지만 너무 誇張하고 脫線을犯하는것은 큰걱정이다。 東大門外 兄弟酒店이라는데서 飮湯을 잡숫고온 한辭客은 나에게 『飮湯이야말로 朝鮮料理의 精華일세』 이런말을하엿는대 金文輯氏도 飮湯맛을보면 이런소리를 할는지 몰으지만 그의批評에는 確實히 이런 곤드레 만드레의 醉面이잇다。 氏의 눈에는 金裕貞氏文章이 大學校 朝鮮語講座의 敎材로 삼을것만 보히지 그瑕疵와 缺點은 띄이지 안는것이다。 文章의 靈魂인것으로는 朴泰遠氏와 비슷하나 朴氏의 技巧主義는 對象의 一切心理와行動에 對하야 한가지라도 빠트리지 안흐랴는 努力이지만 金裕貞氏의 그것은 全然다른方向이다。 假令 氏가 新奇하고 아름다운 單語나와 逢着한다면 小說을 쓰기위하야 文章을 맨드는것이 아니라 몇의 單語를 使用하기위하야 文章을 製作한다는 印象을주는 點들의것이다。 그러키때문에 氏가

……得……[illegible] 名文도 만흐려니와 가다가 [illegible] [illegible] 「이놈아 말좀 너이거는 아 [illegible]」

이러한 句節이 바로 그런類例의것이다。 나도 가끔 東大門出入을하지마는 飮湯은 짜장 별난 飮食이다。 金裕貞氏의 文章 即 飮湯이라고는 말하지안호나 들다 朝鮮料理의精華가 아님은 同一한것이다。

朴泰遠氏와 金裕貞氏의 조치못한 部面을 가지고 文章道의 노라난乾達이라 말할수잇다면 이려한 난봉퇴가 업시 시골색시의 飮湯을 보는듯한것이 朴魯甲氏의 文章이다。

……前……[illegible] 引用한 對話의 엽출에다가하고들을 안얼고 쓰는 사람도 現役作家로서는 實로 이할것이엿다。

『아이 취 치』·

『에 눈도』

그들이 톡 톡라 눈뜨든 발을 헐제는, 이미 오고싶흔데를 다 와닷는 표도되려니와 게다가 밧븐기침 몃마듸만 터보래면 예의를 아는 이백성의 초범인사는 단단이 되는것이엇다。』(옥초사흘)

아무態度도 업는대신 눈꼽틀리는것도 업다。 氏의 文章은 담배피어물고 주머박는 農軍들의 이야기가티 구수하며 素朴하다。

그러면서도 文法 文體 用語 修辭가 다함께 훌벅洗鍊되여서 눈꼽만치도 未熟한 흠집이업다。 느리도 안코 빠르지도 안흐며 떠부둘지도 안코 아주 가볍어지지도 안는 생활 그것처럼 氏의文章은 알마즌 템포와리듬으로 흘르며잇는것이다。 近來 語彙에 對하야 떠들석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適所適材이어야지 함부로 民虫採集을 하듯

……新……奇한것만羅列하여놋는것은 수가 아니다。 이런짓을 할려면 圖書館가튼데 가서 朝鮮語辭典을 한時間만 펴보고 오면 남이몰으는 朝鮮語를 小說의題目부터 爲始로 全篇채울수도 잇스며 語彙가 豊富하다느니 얻저니 얼간評論家의 얼간批評도 듣게될수잇다。 그러나 말의하나 하나에게 제各各 生命이부러잇는것이요 「빤」할것을 『볼따귀』하고 바꾸어만 놋는다고 끝줄난才操가아니다。 自己의所持한 眞正한 語彙를 辭典속에서 찾지안코 生活속에서 消化하야 가장 效果잇게스리쓰는 사람도 朴泰遠만한이가 드물것갓다。

李無影氏도 條理整然한 文章을 가젓스며 外에李石薰 韓雪野 李箕永 韓仁澤 諸氏의 現役作家로서 말할餘地가 만흐나 紙面이 許諾지안흠은 遺憾이고 생각하면 나는 至今까지 모두 미움바들 소리만해온것 가트데 이분들에게는 다음

……機……會에 人心을 일키로 한다。 누구는文章을 水泳에다比較하야 無限한 努力을 드리면 水泳이熟達하여지는것처럼 文章도大成 하는것이라 말하엿는대 나는 [illegible] 남의거무튼것만 攻擊하고잇섯든것갓다。 本論初面부터에서 中止하엿든 水泳과 同時에 나의文章을 좀더發展시키기爲하야 이만붓을 놋는다。

季節의除隊 ⑨

避暑地款告

東海岸 (下)

金瑢俊

바다에서는 느끼한 풀비린내가흘러온다。

바다에는 달이 떠잇다。 한울에 뜬달은 멍석만하고 바다속에 뜬달은 합지박만하다。 波濤가 몰려 온다。

[illegible]試合하는 場面처럼 번쩍 번쩍 달빛과 波濤가 차우면서 희거품을 海岸가으로 모라다붓친다。 그러고 검은 물결은 後退하는 사람처럼 흘러는 양이 마한송 솔포다。 [illegible] 따라손벽수를이 빽나위처럼 펄 펄 뛴다。 포꼿 나의 幻想은 東海의

[illegible]의 한 場面으로 옮아간다

——落日、東洋으로 떠나는 배는 오늘도 泥泊해잇다。 눈길 새파란 게집에는 모엽는 人生의 悲哀를 늣기고 잇다 異邦으로 떠나는 배를 몰래 잡어탈가보다。

白鶴 이 落日에 白鶴가 잇다。 白鶴는 그 노다란 瞳孔대를 주다하지 온다。 白鶴는 그 아득한 沙漠을 달리고잇다。

이 落日에도 젊은 고양이가잇구나——樂한 밤바다 人가에 아롱모를 조개껍질들이 東海의 쉬처럼 여긔 저긔노여잇다。

中國古代劇의 斷片的考察

❶ 金友琴

百獸率舞

本來 戲劇과 祭神은 互相間聯繫가잇다。 다만 祭神前 一種의 歌舞는 原始的民族이 創作하얏슴 歌舞는 一定한 祭神을 爲함이아니고 오직 勞働的 一種의 反復的表演으로 無目的의 勞働이다。 即遊戲化의勞働 다시 말하면 生存競爭上 本元的一種의 巫術이다。

文化史上에依하면 太古는 石器時代에서 狩獵時代 更進하야 農業時代라고한다。 그리하야 石器時代의 戲劇活動의 如何를推論하고 新石器時代에至하야 처음正式으로 現在 所謂人類가생겻고 또한 人類史上 有史以前의人類史가잇슬것이나 狩獵時代에進하야 歌舞가發生되든하며 古代人의狩獵의歌舞는 完全히 이런種類의 一種의手段 다시말하면 勝利的狂歡일것이다。

希臘時代의 羊舞가리 人間들이 羊角을 頭上에 戴하고 羊皮를 身上에纏하고 羊의모든動作을 模倣하엿다。 이런羊舞는 希臘以前에 이미 發生하얏슬것이다。

그目的으로서는 自己들의 狩獵的工具로써 그子孫後代까지 狩獵을敎授한것이며 遊戲的으로보면 곳 그當代人間들의 狩獵上勝利的慶賀일것이다。

書經 益稷篇에記錄하엿스되 『予擊石拊石 百獸率舞』라하야 石은 곳石磬을 指稱함이니 樂器中 가장諧和키難하는基本的一種이며 또한 樂器中 가장原始的 一種으로 或說에依하면 石器時代에서 傳來된 樂器라고한다。 『百獸率舞』란 當然히 眞物的百獸가 아니라 사람이獸皮와 獸角을 假裝하고 演出하는것이다。

이에서 想像하면 所謂『予擊石拊石 百獸率舞』는 大禹水 前後의 事實인가한다。

同篇에말하엿스되

『禹曰…洪水滔天、浩浩懷山襄陵、下民昏墊、豫乘四載、隨山刊木、曁益奏庶鮮食、予決九川距四海、濬畎澮距川、曁稷播奏庶艱食鮮食、懋遷有無化居丞民乃粒、萬邦作乂』

라하야 그當時洪水의患이 漸漸平定되어갈적 그 狩獵生活이 農業生活로 進化하는時期이엇섯다。 此書中의『予擊石拊石、百獸率舞』란 이一句는 石磬를 처 音律을 마들고 獸皮를 扮裝하야 狂舞한것이 農業生活以前의 充分한 表示이며 곳狩獵時代의 中國古代戲劇의活動的 一斑이다。

蜡文祭也

初期農業時代에 進하야 周朝에 所謂 井田制度를 採用하야 耕作者로하야곰 田地를 管理케하엿다。 그實은 大禹治水時期에 南北縱橫으로 溝洫을 開鑿하야 井字를 形成하야 水患을 平定한 後 百姓들은 瑤溝에 居住하야 耕種에 就한것이 곳 井田制度의 起始이라한다。 그래서 夏商周에 至하기에 이井田制度를 廢棄하기前 아직 封建的社會化되지아니하야 地主와 農奴의 對立이 업섯고 다만 宗敎的儀式의 發芽가 잇섯슬뿐이다。

이時代의 戲劇活動은 顯著히 表示가 되엿다。

初期農業時代의 社會를 背景한 禮記郊特性篇中 祭天에 對한 說明이만흔지라 그要句를抄寫하면

『天子大蜡八、 伊耆氏始爲蜡、 蜡也者索也、歲十二月合聚萬物索饗之也』

라하야 伊耆氏는 蜡를말하는것으로 夏의淸祀(殷의嘉平」)은 모다 蜡의 祭禮로 周朝에 비로소 正式으로 蜡(年末祭)이라稱하엿다。 蜡祭는 八神을 祭祀하는것이며 一에先嗇、二에司嗇、三에農、四에郵表畷、五에貓虎、六에坊 七에水庸、八에昆虫 등으로 完全히 農業生活을 本體로한 祭이다。 同篇中에 日

『蜡之祭也 主先嗇而祭司嗇也、祭百種 以報嗇也』

라하야 先嗇은農神으로 所謂 入神의主며 司嗇은后稷之官이며 百種은 百穀之種神을말함이다。 이런方面에서 祭의主神主는 즉 戲劇의 起源으로 祭祀가 모다 生物界에 對한 主神的戲劇의 活動이다。

中國文壇의 近信一題

魯迅

中國文壇은 文離滅裂統一이 되지못하는 混沌狀態에 빠저잇다 이것은 國民黨의 文藝彈壓에 原因되엿다고볼수잇는데 지난六月七日 作家茅盾、洪深、白薇求諸氏가 發起人이되여서『中國文藝家協會』라는 團體를 上海에서 結成하엿다 一流文藝家六十餘名이 參加하고 救國戰線의 結成을 決議하얏는데 이會合에 中國文壇의 第一人者魯迅은 參加하지안헛다 協會에서는 魯迅의 不參加 上에서 그들 協會를 反駁하고잇다 中國文藝家協會는 所謂國防文學을 提唱하는것으로 創立大會席上에서 茅[illegible]이 朗讀한 宣言은 이것을 前面에 내세워 國民黨과 어느 程度의 妥協을 가지고잇다 이러한것이 魯迅으로 하야금 參加을 꺼리게 한것이며 協會는 파쇼化하고 파시스트의 領導下에 노인다고『作家』八月號紙上에서 魯迅은 痛烈한 論調로 協會를 攻擊하고잇다 [illegible]『聯合戰線의破壞者』라는 非難을 보내고잇스나 [illegible] 寫眞은 『作家』라는 文學雜誌 魯迅氏自署 (同盟通信)

『氣象圖』出版記念會光景

金起林氏의 近著『氣象圖』의 出版記念會는 지난五日에 가지려고하엿든바 事情上延期되여 八日에 太西館에서 열렷다。

나의 關心事

海州『文協』

安含光

「愛鬱은 怠慢과가튼 性質의것이다!」이것은「엘렐의 悲哀」가운데잇서서의페―터의말이거니와 그怠慢이라고하는 것은 一方『孤獨』한心情으로부터 緣由되는 것이나 아닌가(?) 하고 지금의 나는 때때로 생각하는적이잇다。 勿論 그 人物이 出衆하면야 粗雜한 日常生活의 諸條件가튼것이야 넉넉히 完全에 갓가운 狀態에서 超克할수 잇는것이겟지만 우리와가티 氣質히게 凡庸한 存在이고 볼때 問題는 그러케 單純해지지안코 안는것갓다。 雰圍氣의 刺戟性! 雰圍氣의 興奮性! 이런것들이야 그누구에게 잇서서인들 必要치안흐랴만은그 程度에 잇서서 凡庸한 存在에게 보담더 切實한것이나아닐가?? 이리하야 한개凡庸한存在인나는 그얼마나 조흔雰圍氣를 渴望하고잇는것이랴! 참으로우리의理念을 刺戟해주고、젊은熱情의 興奮性을 維持해주는 雰圍氣! 이것은 곳 젊은世代의 要求이아닐가?? 하나 不幸하게도 아모런刺戟性도 업는 탐탐한 雰圍氣가운데 서지내는 地方人인 나는不絶히 潮水와가티 밀려드는 『孤獨』의 擁護을 밧지안흘수는업고、『孤獨』의 心情은 마츰내 懷怠의 精神을 胚胎하며 이懷怠의 精神은 곳 憂鬱의 暗影을 性格化하지는안흘가! 希臘的인理智도 羅馬的인 浪漫도업시 그저 [illegible] 活感情! [illegible] 그一部人에게만 限된意味가아니라 眞實한 意味에 잇서서의 조흔文化機關이업는 地方的인 特色이 아닐가! 이러한點에着眼하는 멧개의意見이 相照되는바에서 組織해논것이 海州의 文化協會다。 이러하야 世俗的陋巷에 混迷되는 모든 젊은世代로 하여금 『學』에 對한 興味만이라도 喪失치안흘 조흔『아트모스페어』를 갓게하는것이 그趣旨의 根幹이아닐수업다。 이에 그路線에 關하야 때때로 생각하지안흘수업게되니 이또한 最近 나의 關心事中의 하나가 아니랴!

新刊紹介

▲批判 九月號(內容)英國內閣의成立과佛國의財政危機、世界經濟情報、文化領域에現影되는非文化性에對하야農業資本制化의諸形과朝鮮土地調査事業의意義 文藝評論、詩、創作等其他 發行所京城府寬勳町一四六 批判社 振替京城二三七八七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朝鮮銀行統計月報 昭和十一年五月分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一一〇 朝鮮銀行 定價五〇錢

▲農業朝鮮 九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三丁目 任家ビル 朝鮮産金組合 振替京城一〇二一九番 定價三十錢 送料十錢

▲新家庭 九月號 (內容) 性敎育問題=李甲秀外諸氏 性病患者에게시집가려면? 朴昌薰外諸氏 女性時評、流行常識、國際常識、實話、隨筆、紀行、詩、童謠、童話、讀者文藝、朝鮮婦女民謠等其他、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番 定價二十錢

▲專賣の朝鮮 九月號 黃色種煙草二十五週年記念特輯號 發行所 朝鮮總督府專賣局內 朝鮮專賣協會 振替京城一三八六三番 定價三十錢

▲四海公論 九月號(內容)學藝自由의擁護 獨逸協定과 歐洲의危機 東一銀行은어데로가나、朝鮮基督敎와 韓國信仰圈、讀書論 新羅의文化와高麗의文化、詩歌、史談、創作等其他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一〇 四海公論社 振替京城九八六〇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佛敎時報 第十四號(月刊) 發行所 京城府[illegible]洞町五의三七 佛敎時報社 振替京城二三三八四番 定價一部五錢

▲ホームライン 十月號 發行所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一丁目 ホームライン社 振替東京一二一一番 定價十錢

▲昭和ノ光 九月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內幸町一丁目大阪ビル新館 天理法存[illegible]聯盟 振替東一九六二七番 定價一部五錢

▲ひとのみち婦人と家庭 九月號 發行所 大阪府中河內郡布施町永和三九三 ひとのみち出版社 定價二十錢

絢爛한 天分의 爭霸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期日 決選十月二十四日、豫選十月廿一日、申請十月十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蘆花 (女)「수-만」 一、님은 나의安息(男)「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五十錢에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풍부賞金을 授與함

審查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肺病 肋膜炎 肺炎가다루 藥

本社에서 發表한肺病肋膜炎의全快者는어느거나左記에公開한 高價藥配劑의別製治肺劑와有田血液素를服用하면서 一方으로 올바른攝養으로實際에全快되도록하는것으로서住所氏名을明記하고全快後健康體가되든實際까지 公表한것으로서正確하고도信用할수가잇다。有田別製治肺劑는 歐米는勿論、我國醫藥界의最高權威者들에게서選定된日本藥局方治肺劑와多數高價藥等二十三種의配合에依하야綜合的醫治效能을 表顯하려가지症狀을輕快케하는公認治肺劑이다 現今은當局의取締가甚히嚴重함으로虛僞又는誇大廣告는絶對的으로不許하니左記의高價藥配劑公開가튼것은虛僞는안이다

結核治療劑 (時價一키로瓦의單價)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五種藥綜合配劑

鎭咳祛痰劑 一種 七百四十圓 外一種藥配合

結核解熱劑 二種 二百三十圓 一種 三十一圓

强胃强腸劑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四種藥綜合配劑

食慾促進劑 一種 二百六十圓 外一種藥配合

鎭靜劑 一種 五十二圓

消化劑 一種 四十七圓 外一種藥配合

酵母劑 一種 五圓五十錢

滋養强化劑 一種 五十二圓

호르몬劑 二種 千六百圓 一種 千二百圓

本社의藥劑가肺病과 肋膜炎에如何한有効한가를 누구라도곳알게되는것은貧血이增進되고[illegible]增加結核熱의解熱기침의緩和炎의減退等으로보아도回復期에들어간다는證據임으로放心말고養生하지안호면안이되나니 連服하야藥效가나타나기始作하면 體重이날마다날마다增加됨으로 試驗하여보시라。

特製治肺劑 治用十八日分 [illegible] 別製治肺劑 治用十八日分 [illegible] 血液素 治用十八日分 [illegible]

有田血液素 [illegible]

有田ドラッグ

有田ドラッグ專賣所々在地

京城府[illegible] 有田도락구 / [illegible] 有田도락구 / 平壤本町 有田도락구 / 釜山幸町 有田도락구 / 群山榮町 有田도락구 / 全州高砂町 有田도락구 / 光州本町 有田도락구 / 木浦榮町 有田도락구 / 大邱京町 有田도락구 / 馬山京町二 有田도락구 / 麗水 有田도락구 / 浦項本町 有田도락구 / 兼二浦本町 有田도락구 / 鎭南浦漢頭里 有田도락구 / 海州南本町 有田도락구 / 新義州櫻町 有田도락구 / 元山本町二 有田도락구 / 咸興本町二 有田도락구 / 羅南生駒町 有田도락구

高價藥配劑公開

梅毒

本社創製의 梅毒劑는 政府制定日本藥局方驅梅劑二種과 [illegible] [illegible] 매독、[illegible] 매독、유전매독、매독성[illegible]

[illegible] 곳 [illegible] 매독을 [illegible] 하루라도 [illegible] 하야 곳지서라。

淋疾藥

淋疾患者에 어떠한藥이 第一조흔가?

이것은 內務省大臣을 會長으로하고、[illegible] 本藥局方에 收載하고、또內務省衞生試驗所에서 [illegible] 本社의淋疾藥은、政府指定[illegible] 藥局方收載 그리고 內務省衞生試驗所封緘의 治淋劑六種을主藥으로하고 [illegible] 淋疾患者는專賣所에 [illegible] 곳有田도락구로 [illegible]

淋疾藥 [illegible] 八日分 [illegible] 十六日分 [illegible] 十五

連載野談 (三二) (不許轉載)

赤囊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畵

신의잇는련애 (二十)

김천이 백운국선의 깨끗한몸을 두손으로 떠받치고 물이잇는곳으로 가며

「국선서방님이 무진을 오시게될때 떠에 여러 남녀노복이 잇는것을 다버리시고 나에게 의론하신것은 분명 나를 미드신것。그러시니 나도 알뜻 국선서방님을 잘보호할뿐더러 나루서는 크나큰 책임。그러귀 국선서방님이 어찌 이되섯스니 이러다가 영영 피여나지못하시면 제후소저도 용당 자처할것。그런 큰통이 생긴다하면 나도 국선서방님의 안위(安危)를 보호하려든 그책임 그신의로보아 나홀로 살어갈수업는것。일생의 지긔를 만낫다가 그지긔를내 잘못으로 얼터버린이상 내어찌 떳떳히 살수잇스리오。」

하나 김천도 백운국선이 영영 피나지 아니하면 제후소저가 자결하는것도 말리지아니하고자 과도 역시 자결하려고 생각하얏스니 먼저 제후소저가 근두바질을 칠때에 잘못하면 세목숨이 여호나 가마귀밥이 된다고 한날이 범서 김천도 사봉여의 하면 자살하려는 뜻으로써 말한것이엿다。

김천이 이러한 큰결심을 가슴에 품고 백운국선을 고이고이 들어다가 그물이잇는옆、고혼 잔듸밧우에 편히 뉘엿다。

그리고 제후소저와 김천이서로 풀닙을 따서 그 석간수를 떠다가 백운국선의 입에 흘려넉키도하고 이마를 축이기도하고 비록 동자가 썩은 눈일지라도 그두눈을 비롯하야 얼골을 씻기도하얏다。

어때 여러가지 산새소리는 적적! 여러가지 꼿과 풀은 버웃 너울!

제후소저와 김천은 백운국선을 드러다보면서 다만그 석간수로서 회생하기를 축수할새 어찌 가슴에서 마오르는 질을 곳수잇스리오

강득이나 마음이 더러버린눈옷、심새가 눈이 보이고 귀에 들리는 풍경조차도 갑하얏다。

제후소저와 김천이 서로 번갈려가면서 몸도 떠오고 백운국선의 몸을 문지르기도한지얼마를 지나서 백운국선의 차디찬몸은 땃뜻한 긔운이돌기를 시작하얏다。

「아앙。그럿치 어찌 적지선명이 무심하시리오」

하고 김천이 백운국선의 몸을 만지며 기뻐이 넘치는소리로써 제후소저를 향하야 백운국선의 몸에 온긔가 도는것을 말하얏다。

「아이고 이산 신령님의 도으심으로 어서어서 회생하야주시기를 비옵니다 온긔가 도시지。」

하며 제후소저는 크게 기뻐하야 백운국선의 팔에 손끗을대고 아지도못하는 맥을 집허보기도하고 백운국선의 코구멍에 손등을 대고 코김을 쏘여보기도하며 또한 백운국선의코에 귀를 기우리고 숨소리를들어 보기도하얏다。

이러듯 숨결을 시험하는 중에

「후…」

하고 백운국선이 긴숨을 내쉬인다。

「그러면 그럿치 어찌 국선서방님이 그러케 허무하시게이 세상을。」

하며 제후소저와 김천이 다시금 정신이 떠밧작나며 매욱볼을 빨리들여 그석간수를 떠다가 백운국선의 입에 흘려넣코 그이마와 두눈을 작구 작고씻섯다。

「대관절 누구시요?。」

하고 백운국선은 그들을 떠바라 먹다가 자긔를 구원하는사람이 누구인것을 물엇다。

「제후소저는 여긔 계시고 김천이도 여긔 뫼서잇스니 정신을 어서 채리시지요」

하고 김천이가 극히 기뻐하야 대답하얏다。

이때 제후소저는 아무말업시 하고 다만 눈물만 흘리며 백운국선을 내려다보고 잇섯다。

백운국선은 김천의 대답을 듯고

「제후소저와。김천?」

하며 정신이 바짝드는듯이 감엇든 두눈을 뜨고 두손을 내저었다。

이에 한손은 제후소저가 잡고 한손은 김천이가 잡으며 백운국선의 먼 두눈에서는 눈물이 흘리기 시작한다。

이때 제후소저는 흘리는 눈물을 흘리며 백운국선의 눈물을 씻는다。

「응응 잘 내눈이 떠엿지。그런데 내눈이 이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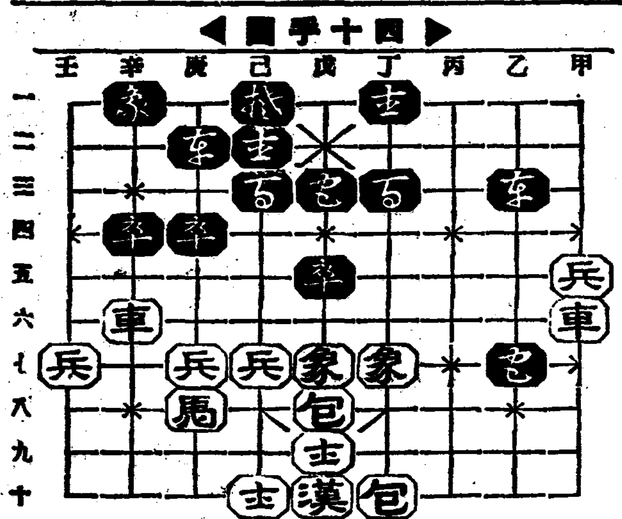
하며 백운국선은 제후소저와 김천이를 번갈라 바라보며 그 얼굴을 보러는드시 두눈을 번적떳다。

그러나 보이지는 아니하고 다만 두눈앞이 이상한것만 늣기게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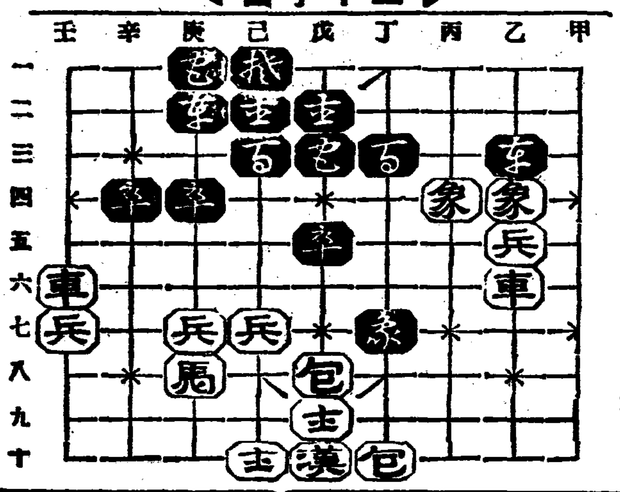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五)

楚先手 全于石 漢 李在鳳

◀圖十四手▶



◀圖十五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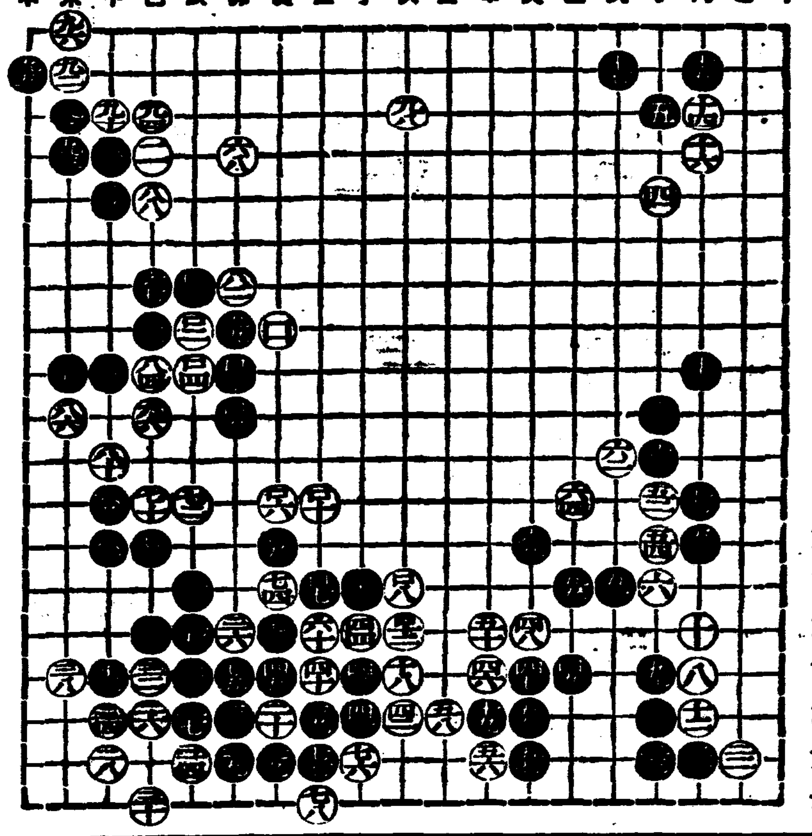


乙七⊖—乙六 甲六車—乙六
戊七象—丙四 辛一⊖—己一
丁一⊖—戊二 丁七象—乙四
甲五兵—乙五 己⊖—丁七
乙二⊖—庚二 辛六車—壬六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7— 白 尹周炳 黑先 柳鎭河

[illegible]



棋譜文氏評日

黑이 五의十四로 斷點을 試하야 白을 乘虛코저하나 白의 八九十連三點이 模樣으로 進展이 容易치못하을 擬度하노라

日本P.C.L 레코-드會社 새로創立吹込開始

가을씨-슨을 마저한 本業P.C.L映畵會社에서는 資本金六十萬圓으로「日本P.C.L레코-드會社」라는 새會社를 創立하얏다 赤羽에 二千坪의 基地를 가지고 푸레스드工場이 完成하얏스며 P.C.L 撮映錄音에다가 吹込所를新設하야 今十五日부터 吹込을開始한다는데 同社에서는 元帝國비아社의 常務佐佐井氏가 專務로新任하고 動物性膠質을 本體로한 「푸로세스」의 「푸레스」方法을 採用하야 斷然斯界의 霸權을 휘잡을 氣勢라하니 가을의레코-드界는 이로서 各社의 競爭이 激化하는 同時에 完全한 混戰에 빠지리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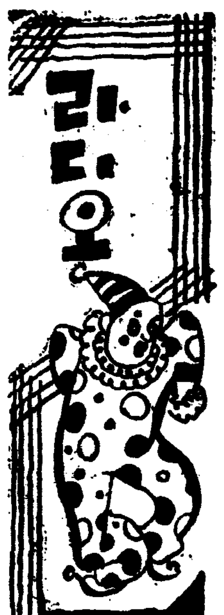
☆曆☆

九月十日 (木) 陰丙申七月大(廿五日) 乙未·金·井·開

●祭祀移徙裁衣上樑卯時開市納財

●白露 八日(舊廿三日) 에宜함

●秋分 廿三日(舊八月八日)



라디오

九日 (水曜)

◇午後六時 童話 高在天
◇同六時一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가을의花草」徽文高普 李軒求
◇同七時三〇分 講演「第二回古蹟愛護데이開催에對한所感」總督府社會課長 金大羽
◇同八時 (東) 管絃樂 交響曲 第四 伊太利…멘델스손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三〇分 映畵이야기 레오나-드·1 코르비치 柳寅成
◇同九時 音律「靈山會相」 指揮 玄琴 李彦鍾 洋琴 李承煥 奚琴 池龍九 短簫 洪斗憲 洞簫 鄭載弼 杖鼓 李章夏

第一放送

◇午後六時 (大) 童話劇 大阪府生劇協會
◇同六時一五分 講演 佐瀨直衞
◇同七時三〇分(東) 講話 渡邊世祐
◇同八時 (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三〇分 (大) 筑前琵琶 竹家旺瀾

十日 (木曜)

◇午後零時五分 (大) 빠이올린과管絃樂 빠이올린 콘체르트、라-브레히트 大阪放送交響樂團 指揮 內田元
◇同一時二三分 婦人時間 朝鮮옷과다드미의利害 尹聖相
◇同六時 兒童劇「고기잡이간버지」全一景 配役 玉姬…金 小女一…高聖方 小女二…羅金千 玉順의아버지…金 玉順의어머니…劉樺香 京城放送兒童劇研究會 指揮 南雲 伴奏 劉永愛 效果 柳利景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外來語의消化問題 中央高普 卞榮泰
◇同七時三〇分 講演 指定古蹟에對하야 崔南善
◇同八時 平壤念佛外 一、平壤念佛 二、자진念佛 三、寧邊歌 四、開城難逢歌 五、방아타령 李眞鳳 金玉葉
◇同八時二五分 唱劇調 一、短歌—老人歌 二、唱劇調—赤壁歌 鼓手 韓成俊 方應
◇同八時五〇分 名曲鑑賞 (레코드演奏) 빠이올린과피아노 스프링소나타 作品二四…베-토-벤作曲 解說 朝鮮音樂家協會 安 빠이올린 존 마시아 피아노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 遠成講座 (二十二)
◇同一〇時三〇分 (大) 家庭講座
◇午後零時五分 (大) 빠이올린 콘체르트、라브레히트 大阪放送交響樂團
◇同二時 常識講座 角永清
◇同六時 (東) 이야기 郵便切手 村岡花子

十一日 (金曜)

◇午後〇時五分 (大)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앙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략、短歌 楚漢歌 바、唱劇調 鼓手 丁元燮 池永學
◇同一時二五分 常識講演 朴容駿
◇同六時 吹奏樂 中東學校樂隊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科學講演 宇宙의神秘 (스펙트럼) 沈亨弼
◇同七時三〇分 講演「自己生活과社會的責任」
◇同八時 (東) 室內樂 絃樂四重奏曲 作品四一 第一番 A短調 슈-만作曲 第一樂章 인트로덕치오-네、안단테、에스프레시보알레그로 第二樂章 스케르쏘、프레스토 第三樂章 아다지오 第四樂章 프레스토 모기레프스키-콰르테트 李克魯
◇同八時二五分 古談「積善餘慶」 張志浩
◇同九時 遊山歌外 一、遊山歌 二、船遊歌 三、달거리 四、제비가 鄭牧丹 金溟紅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英語會話講座(二ノ七)
◇同一〇時三〇分 (大) 美容講座(四) 谷川
◇午後零時五分 管絃樂 DK오케스트라
◇同二時 常識講座
◇同六時 童話劇
◇同六時二五分 講話 孔子生誕 本多龍成
◇同七時三〇分 (大) 講演 小谷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永田秀次郎
◇同八時 (大) 人形淨瑠璃 西播子樂座出演
◇同八時 (大) 室內樂 모기레프스키外
◇同八時二〇分 (東) 落語 桂小文治
◇同八時五〇分 竹曲 太宰府神社樂部
◇同八時五五分 (東) 시네마오퍼렛타
◇同九時 (東) 長唄 吉住小三郎

品質本位

花王石鹸 (화왕비누)

살결을거칠게하지마라!

一年中에 只今이가장살결을重히녁여야할때엡니다、

特히 婦人 어린이들의 델리케-트한살결을爲하야 只今이야말로花王비누를使用하십시요

花王비누는 어데까지나 穩和하고어떠한 柔軟한살결에도 刺戟이업고 그리고潤滑하고 生生한 健康美를만드러드립니다

純粹度九九·四%

正價一個十錢

東京·花王石鹸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蒼耳五淋錠 淋疾

[illegible]

朝鮮靈藥研究所

●工夫中 ノーシン●

株式會社 朝鮮日報京城販賣局 電話本局 一五九七番

咸興都市計畫進捗
用地買收벌서申請
從來의計畫順序를變更하야 爲先驛移轉부터着手

【咸興】 [illegible]

羅災民五千戶에 被害額八十萬圓
善山郡內의 慘害判明

【善山】 [illegible]

善山面 · 舞乙面 · 玉城面 · 桃開面 · 海平面 · 山東面 · 長川面 · 高牙面 [illegible]

計 [illegible]

그리고 전군내리재호수는 오천여호에 달한다고한다

多獅島增築工事 不日着手

【新義州】 서조선유일의 부동항(不凍港)인 다사도(多獅島)항 [illegible]

江西郡下에牛疫 斃死牛가續出

【江西】 강서군하에서는 지난달부터 우역이 발생하야 [illegible]

乳房이 切取된 悲慘한 少婦屍

【釜山】 [illegible]

元山에 警火管制 十六、七兩日間

【元山】 원산부에서는 [illegible]

第一日(十六日) 一、午後八時十分 [illegible] 二、午後九時十分부터三十分間 [illegible]

第二日(十七日) [illegible]

永昌고무二百職工 全一日工賃喜捨

【安東縣】 [illegible]

水災救濟演劇會에 눈물의金五十圓
劉根植女史의赤誠

【安東縣】 [illegible]

龍岡江西兩郡만 旱害額二百萬圓
二百餘個里에 收穫皆無三千町步
南浦經濟界도大打擊

[illegible]

肅州郡內에서는 救濟會를組織

[illegible]

入婿와不義의關係 女兒分娩殺害
男女모다檢事局送致

[illegible]

郡內災民救濟로 三百餘圓醵集

【洪川】 [illegible]

避難民의集中으로 國境各都市混雜
對岸形勢去益急迫

【滿洲】 [illegible]

李衡彦氏의特志

[illegible]

魔의洛東江沿岸 (二)
死線의災民을차저
보이는것들리는것모도다눈물뿐
本社救護船上에서 鄭永讓手記

[illegible]

四平街 水害救濟素人劇

▲時日 九月十一日(金)午後七時半
▲場所 四平街公會堂
◇主催 四平街同胞有志
◇後援 朝鮮日報四平街支局

地方人事

▲吉村久顯氏 [illegible]
▲金柄穆氏 [illegible]

愛慾의彼岸 【96】
李光洙 作
金康穆 畫

[illegible]

新秋讀書界에 ……는 一大出版! 小說界의 最高峰이 것이다!

★沈熏先生大力作
常綠樹
四六版 高級布裝 五〇〇頁 金字函入
★ ¥.1.80 (送料十錢)

豪華!長篇小說의巨彈!
序文·春園李光洙先生
한글校閱·李允宰先生
裝幀·靑田·靑汀·夕影

各界名士의激賞絶讚

『健全文學』의 大旆를세웟다 小說家 玄鎭健
事件展開에 遺漏가업는用意 評論家 申南澈
여러번感激하야 熱淚를不禁하엿다 小說家 朴花城
抒情詩的인 朝鮮의鄕土色! 詩人 毛允淑
難題를解決하려는 創作界의重寶다 東亞日報社 丁來東
心血을傾倒한 靑年男女必讀의書 敎育家 宋今璇
굼주린者의 靈魂이蘇生한다 [illegible]
朝鮮現實의縮圖 課本으로推薦한다 朝鮮語學會 李允宰
珠玉가튼文章에 온갓想念을壓縮 音樂家 朴慶浩

發行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堅志町三二 振替京城七六六〇 電(光)一四七九·二七三

東西醫鑑 南采祐 著
靑囊訣
全帙四冊 定價八圓 特價五圓六十錢
新聞名記入注文하시는분에限하야 送料本社負擔!

優美館
白き王者
俺の鐵拳制裁
[illegible]

朝鮮劇場
カイロの戰慄
[illegible]

浪花館
九月九日부터九月十五日까지
金 貨
三十九夜
入婿合戰
[illegible]

"米自管法發動" 實現境遇再檢討

八月十五日現在의 本年作況 [illegible] 은 [illegible] 이라 [illegible] 「稍良」이라 [illegible] 米穀自治管理法의 發動이 [illegible] 되어다

×

지금에 「稍良」을 가지고 [illegible] 하여보자 「稍良」이라고 한은 [illegible] 作況에 比하야 增收五分以內 를 [illegible] 가리킨것이

[illegible] 均實收高를 보면 다음과갓다 (以下東京電話)

明和六 [illegible]

[illegible] 以上과가티 [illegible] 六千五百萬石 [illegible] 「稍良」이라고 [illegible] 六千九十一萬石으로 [illegible] 이라고 말할수가 업다

×

米穀自治管理法은 [illegible] 十一月中에 日本內 [illegible] 一日現在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米가 생기것가티 [illegible] 法에잇서 [illegible]

凶作米價低에 自治管理負擔
日本內地豐作豫想、過剩米로
朝鮮은最惡事態憂慮

米穀自治管理의施行期內外地米의 一元統制實現에當하야 朝鮮에서 關係方面에잇서 가장念慮한바는 朝鮮의 凶作에도 不拘하고 過剩米發生에依한 自治管理의强行 이엇는데 果然 同法의 實施를 보려는 初年에잇서 이最惡의事態인 凶作米價低 게다가 移出制限에 直面하려는 新情勢을展開코야 農業界로부터는 勿論總督府 農林局에서도 그推移를深刻히 憂慮하고잇다

周知하는바와 如히今年의 朝鮮米作은 期初의 旱魃에依한 移秧不能五萬餘町步 繼續氣候에依한 病虫害의 猖獗에 加하야 中南部朝鮮의 約二十萬町步를 超過하는 洪水禍 七月下旬以降 五十日의 曇天繼續에依한全朝鮮的日照不足과開花期被害가잇서 如何히 樂觀的으로 보드라도 二割의 減收는 不可避의 大凶作이다 그런데 日本內地米作은 作況豫想으로는 稍良이엇스나 颱風禍는 全然 업섯고 二百十日白露도 高溫으로 推移하는 理想的의 好調를 示하야 昭和八年以來의 連續凶作의 뒤이라 一部에는 收穫七千萬石說 假令 今後의 日本內地天候가順調로推移하야 七千萬石說이 實現한다면 過剩米의 發生은몹것은必定이오 도 日本內地豐作은 米價를 이미 軟調로하고잇다 勿論 今後의 天候와米價의 位置如何에 달엿스나 凶作 米價低에 게다가 過重高率의 自治管理의 負擔이라는 最惡의事態實現의 念慮는 드되어 거퍼지게 되엇다

水害罹災民과 細民食糧에 惡響

自治管理法에 依하야 三地의米穀統制가 一元化하게된 今日로서는 朝鮮이 不作이라고하드래도 結局은 三地作況全體로보아 過剩米가 生하게된다면 同法의 發動을 보게될터인으로 大體에 잇서서 今年에 同法의 發動을 보게되리라고 豫想할수잇는데 當局米穀當의 比率은 日本內地가 〇、三五、朝鮮이〇、四三、台灣이〇、二二로되어잇서 萬一이때로 管理가되고實施된다면 朝鮮의 米穀事情은 極히 緊迫한狀態에 빠지게되며 高米價政策은 細民食糧에 多大한 惡影響이밋출것이 事實이다 兼하야 水害罹災民等의 關係를 考慮한다면 더욱 深刻할것이다 勿論 今次의 水害外가튼 特殊事情이 잇슬으로 管理米의 比率에도 幾分間 事情이 參酌될수는 잇스리라고 하여도 同法의發動을보게되는時는 大衆의 食糧問題와 重要되어가는 傾向이보이고잇는 朝鮮米穀情勢는 直接大衆生活에 壓迫을줄이 甚하여질것으로 今後當局의 處置가 極히 注目되고잇다

罹災民救濟코저 家內工業을獎勵
慶北에서率先計畫

罹災民의 更生救濟에 就하야서는 總督府에서 生產的救濟를 眼目으로하야 愼重研究中이든바 慶北에서는 率先하야 農村의家內工業振興에依하야 救濟코저 新한 新計畫을 樹立하얏다

米賣受申込數量

【東京電話同盟】公定價格에依한 政府米賣受申込數量七日分은

八年產 三、三七六石八斗
九年產 四〇
十年產 二九六
合計 三、七一二、八

昨年十一月一日以降 申込은 累計九十五萬七千九百二十五石三斗 가되엇다 產米別申込累計는 如左하다

八年產 八九八、三八一石三斗
九年產 五、三四四、八
十年產 五四、一九九、二
合計 九五七、九二五、三

米棉二回豫想
百三十六萬俵減少

【華盛頓八日發國通】米棉第二回收穫豫想公報(九月一日現在)는 八日 如左히發表되엇다 收穫豫想은 第一回에 比하야 百三十六萬俵의減少로 右豫想은 一、二二一千俵 米棉은 그때문에 三圓十錢高를 示하얏다

右는 먼저三等蠶及屑繭을 農家에提供하고 農家에서는 이것을 明紬、春紗等으로 製造케하고저하는것으로 道에서는이에 一臺二十五圓程度의機織機를 每戶에 配布할計劃이며 貫子 紋、絹紬製造에도道에서一部를 補助하여줌이 罹災民의副業을 奬勵할意向이다 如斯한方法은 、此際救濟뿐아니라 其他의生產副業으로서 幾在할것인만큼 總督府에서는 好新이라한다

第二次小麥 增產計畫
千三百萬石目標

【東京電話同盟】農林省에서는昭和七年度부터 始한 小麥增殖五個年計畫이 今年度로서 終了하는때 그成績도 所期의 三百萬石增產의 目標를 達하얏음으로 다시 第二次增產計畫을 實施하기로되엇는데 그計畫要項은如左히 發表되엇다

一、從來 國內의 生產及 消費가 九百萬石乃至一千萬石으로 國內의 需給은 均衡을 得하고잇는데 此外 約三百萬石의 外麥이 輸入되고 잇는바 第二次計畫에잇서서는 以上을合한 千三百萬石의 國內生產의基礎的準備를 整備하려는것이다

一、多收穫의 目標는 昭和十年의段當平均收量一、四五六石에서 다시一割增收 即一、六石을 目標하고잇다

그런데 右에 要하는 經費는 約百萬圓으로 農林省十二年度豫算中에 計上要求하얏다

特殊鑛에도 探鑛費補助
◇新豫算畢竟容認

朝鮮에서는 [illegible]

一、豫算額十二年度 五萬七千圓

一、[illegible] 鑛、망간、몰리브덴、텅그스텐 [illegible] 白金 [illegible]

[illegible] 以上의 [illegible] 探鑛擴大를 [illegible] 되엇다

穀聯改組에 角ㄱ는反對

朝鮮穀物協會聯合會의 社團法人 朝鮮穀物協會로 改組할問題에對하야 角ㄱ協會側에서는 改組後

白金價反落
歐洲大戰以後

의 最高價를보이던 白金市勢는 賣價三十圓丁 買價二十四圓을絕

東洋商事의 態度遂決定
國產對朝石問題

今般朝鮮石油會社의 出現에 對하야 從來의 國產會社 即 早山石油會社와 三菱商事株式會社 小倉石油會社等三社가 朝鮮內의 既得權主張으로 朝石의 前途는 製品出荷의 一時不安을 늣기고 잇섯스나 右三社中 三菱은 總督府의 政策에 順應하고 小倉은 絶對既得權을 主張하야 少毫도 讓步하지 안흠으로 此等中間에잇는 早山石油의 代表인 東洋商事會社의 態度如何가 非常한 關係를 가지고 잇섯다 그런데 同商事會社는 早山石油의 朝鮮內 既得權을 拋棄하고 總督府의 絶對支援下에서 燃料政策에 邁進하고잇는 朝鮮石油株式會社 朝鮮中部總代理店으로 指定되여 副代理店을 募集中이라한다

取引停止 (九月五日)

▲金物商 京城府元町一丁目一二九番地安達商店 安達恒▲化粧品雜貨商 京城府義州通一丁目一九三番地三和商店▲京城府古市町一四番地 津留加德▲京城府明治町二丁目一〇三番地丸善商會李斗喆

經濟界消息

◇燃料選鑛研究所新築=燃料選鑛研究所는 이미 設備擴張、建築物老朽로 되엇스므로 十二年度에 經費七萬圓으로서 新築하고 設備의 一新을 圖키로 되엇다고 한다고

○日東紡拂込徵收=【東京電話同盟】日東紡績會社에서는 스테ー플·파이바ー增設計畫及 原料品自給의 完成을 期하기爲하야 그所要資金으로 來十一月一日米拂込新株一株에 對하야 十二圓五十錢(總額百二十五萬圓)의 第二回拂込徵收를行하기로 되엇다고

○ 朝鮮의 風水害는 日本內地凶作、朝鮮豐作으로 米價가 高騰해야 젓는때

○ 兩子인 今年은 風、水、旱災하고 大凶作

○ 게다가 日本內地의大豐作豫想으로 米價低 饑荒 形勢

○ 그나·그뿐이나 日本內地豐作에 依하야 過剩米가 생기게되면 自管案까지 發動될모양

○ 凶作、米價低、移出制限의 三重打擊을 박게 되겟스니 한심한 노릇

○ 아ー 蒼天아 굽어 살피소사ー、

人絹은買警戒

金融界는 人絹의 內紛이 時局對策委員會의 提案的妥協案으로 一應解消되엇다 當業者도 이것을 樂觀하고 六十二圓을 恢復하얏는데 結局 六十一圓까지밧게 가지안엇다 그原因은 지금까지라도등하면 現物이 [illegible] 先物 [illegible] 現物과 [illegible] 서것다 이러한 現象은 자미업는 일로 現物은 各方面共히 目前過剩되는 九月은 新規로 賣物까지 [illegible] 되는狀態이라한다

新規材料가 出現지안는限 [illegible] 이라는것이 至當하다 從하야 利거 잇는者는 此際에 賣分할것이다 그反面 普通絲와 人絹과 [illegible] 普通絲에轉向한 [illegible] 增이 時로 關係가 잇슬것으로 此際探鑛 [illegible] 가잇다。以上과가튼 [illegible] 福市勢는 期待되지안는 [illegible] 가고나서 [illegible] 賣方法으로는 [illegible]

重要商品界事情

商況 [九日]

株式 不安再燃 急落

前場鐘新高 昨後場東新再上進이될뿐이어 今前場은鐘新이 百七十圓內外의好勢로 上放되어 百六十九圓丁의高價가잇고 昨後引보다二圓五十錢高인 八圓十錢大引이라 東新이百二十七圓四十錢을高價로七圓丁大引 日產八十一圓八十錢 日產新二十九圓十錢 大新六十九圓丁 朝取七十六圓八十錢 朝新三十二圓二十錢에各大引이엇다

▲鐘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後場急落 十一日取引所制度委員會을압두고 金融再燃하야 東京低落勢하야 形勢不良하고 不勢이엇스니 即 東京百二十一圓四十錢 大新六十七圓十錢 鐘新

株式續落

株式、債券利廻=日本勸業銀行調査=九月一日現在의 主要株式平均利廻는 五分四厘七毛로 前月에比하야 一厘二毛、前年同月에比하야 一厘五毛의各低落인데 이것은 低金利政策에依하야 株價가一般으로 昂騰된것에原因한것으로보인다。그리고 主要株式中前月에比하야 利廻가低下된것은五十三種、騰貴되것은十二種、保合은四種으로 低下되것中顯著한것은交通運輸株、洋灰株、紡績株、石油株等이다(單位·點金額利率分、指數는大正三年七月을一〇〇으로함)

經濟活動期待

國際問題는 國際的政局前途에는 一沫의 不安이업다고할수업스나 큰變動이잇슬것지는안코 增稅程度도 大體預測할수잇는 時期에達하얏슴으로 財界一般에는 氣分이 매우 明朗化되는中이오 諸物價의 騰勢도 極히順調로서 一般購買力은 可驚할回復을示한一面 今後生產力의 再擴大 헌平에再强化가 必至의情勢일으로 海外景氣의 好轉과 相俟하야 前途는 크게樂觀되며 秋期부터年末에互하야 相當한經濟活動이 期待된다한다

不安이엇섯스나 最近 秋市場의 聽解로 諸株는 前相當하야反騰이 急轉回와 共히 現在는 當維持가 充分可能케되엇다한다

秋高準備時代

一般的으로 堅實一本의 投資時代인 一面依然警戒人氣가 强함으로 市場이 活氣가생기면 直時利喰急이나 그만큼直下는안코一方物色買도 去益盛化되는中이다 時히 最近은 一時傍觀氣分有力投賣側도 出勤하는等所謂市勢步調는 漸反落을 全然考慮할수업고 秋市勢에의 大準備時代로보아 前途期待가만타

鍾新百七十圓?

百六十七圓三十錢 鐘新三十一圓八十錢 日產八十圓六十錢에 떠러젓섯다

今前場에 鐘新은米棉三圓十錢暴騰으로 買氣가擴頭되고 도拂込豫想으로는 大阪短期는 百六十九圓八十錢의高價까지잇서서 百七十圓關門內迫의 好勢이어섯다 鐘株의賣는 去益好調로서 循環高인바 이것이 拂折될것이지 매우 期待될것이지 注目되엇다

東株業績好轉

東株의下期上半三個月은 國策未決과 取引所問題等으로 打擊을밧고 恒例의 夏期閑散을 未脫하야 手數料도 前年同期에 比하야서는 一割增收이나마 前期에 比하면 一割五分減收、自然減配도리어 不安이엇섯스나 最近 秋市場의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赤字公債의 發行이 切迫하야 今朝는更히買物이 乏하야 米貨五分半五十錢低를 筆頭로佛貨도先限八圓五十錢을割하야 五錢低어고 內債도一齊히 十錢下押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一〇五 ▲一
四分 一〇二〇 ▲二四四
分一〇一四五 ▲佛貨四分 一
九七九〇

實物前場取引

取引高三二〇枚

▲日本曹達 一〇二公▲日本曹達新 [illegible]▲日滿미ト毛 [illegible]▲昭和人絹 [illegible]▲에타미ト新 [illegible]▲北樺 太石油 [illegible]▲北樺太石油新 [illegible]▲帝國鋼管 一〇一〇▲朝鮮製鍊 一〇〇〇

債券被騰

債券被騰=日本勸業銀行調査=九月一日現在의 主要債券平均利廻는 四分一厘五毛五絲로前年九月二日에 比하면 四厘六毛七絲의 低落이며 前月에比較하면 一絲의微騰을 示하엿다 即 國債地方債 勸業債券其他 銀行債券及 社債는모다 相當한低落에 依하야 利廻騰貴이나 그中面에잇서 農工債券의利廻가 高利債의 續上債券에伴하야 低下하얏슴으로 平均利廻의 騰貴가 前記程度에 終한것이다 詳細는如左하다(單位·厘分毛◆印低落)

	九月一日	前月比較	前年九月二日
國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地方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勸業債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農工債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銀行債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社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今日財界 (九日)

◆米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京城三等米 一石	[illegible]
	正租(仁川)二等 一斤	[illegible]
◆市中金利		[illegible]
◆株	鐘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商品	大阪生絲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고무FAQ	[illegible]

當限俄然軟化
持米側의策戰?

後場新低價 後場은 二十九圓二十錢으로 [illegible] 步調로 [illegible] 二十八圓九十一錢에 止하얏다

後場新低價 前場은 二十九圓〇一錢의 高値를 出하고 二十九圓〇五錢의 [illegible] 止하엿다

當限은 三十一圓五、六十錢의 高價로 正米보다도 [illegible] 持續하고잇든것이 今朝에 入하야 十一月內外의 反落을 告하야 中心으로 當限은 九ウ店을中心으로 [illegible] 持米側의 策戰이아닌가하는 [illegible]

十一限의前途
南派의觀測點

新甫十一限은 二十九圓八十九錢에 發會한後 三十圓十三錢을 一時에 高値한後 因而反落하기始作하야昨今年三月의 市勢를 悔復하야 二十八圓九十錢의 [illegible] 今日에 [illegible]

米期 新低價로 續落

前場少弛 昨後場反動에 [illegible]

靜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新低價後落市勢도今朝는 投一巡으로 利喰急이오 一圓價側에는 [illegible] 買物이잇서 反撥되나 不振이오 軟派 [illegible] 買方=中東側 地場軟派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軟調

實行不振으로賣氣全無이오 氣配十錢低唱이엇다 ◎三等三一、二〇 四等三〇、九〇 一等白米三三、〇〇

仁川軟調

日本內地好順氣로서 入荷가 全無이오 籾傍觀人氣로서 거의 休商同樣의 閑散場面이엇다 氣配十錢低 ◎三等三一、二〇 四等三〇、九〇 一等白米三三、六〇

釜山閑散

精米原料買方이 업고 不氣乘閑散場面을 繼續하얏다 ◎三等三一、五〇 四等三一、

大邱閑況

定期不勢로 買物皆無이나 市中實物浚으로 無碍히 賣込게안코 市況은閑散裡에 保合이엇다 ◎三等三〇、九〇 一等白米一三、七四

群山不勢

產地로부터는逐日實物增加의 傾向이 深刻하는狀態에 對日本內地有利中絶으로 買氣가업고 場面은 不買의無風狀態이엇다 ◎三等三一、三〇 四等三〇、六〇 一等白米一四、〇

木浦軟調

[illegible] 十錢安이다 ◎三等三一、七〇 四等三〇、[illegible]

米 株 光山 金益證券 [illegible] 商店 合資會社

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株式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金融 九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 ◆東京金融◆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正米 九日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九日

◆京城綿絲布市價◆ ◆京城綿布◆ ◆絹紬布◆ ◆綿絲布◆ ◆日本麥粉市價◆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價◆

[illegible]

株式 九日

◆新定代引日步◆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現株◆ ◆朝取短期◆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九日

◆朝取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邱期米◆ ◆仁川期米◆ ◆靜取期米取組內容◆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市中正米◆ ◆大阪正米規格◆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價◆

[illegible]

商品 八日

◆大阪綿絲◆ ◆大阪綿花◆ ◆各地人絹◆ ◆大阪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大阪雜穀◆ ◆코ー히期米◆

[illegible]